

제2회 통일창작동화 공모전 수상작

02

통일 세계상

동화로 만나요

# 통일 세계상

## 동화로 만나요 2

글 송명훈 외 / 그림 최 상 의

“할머니, 올해는 메밀 씨앗 풍선 안 띄우세요?”  
할머니가 방긋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세미야, 이제 할머니는 풍선을 띄우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할머니는 이미 그곳에서 온 답장을 받았거든.”  
“네? 답장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하얀 풍선 조각을 꺼내 보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내가 띄워 보낸 풍선들 중 한 조각일 거야.  
그런데 이 조각이 저 두루미의 발에 걸려 돌아왔단다. 아마 나를 대신해  
고향에 가서 메밀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해 준 것 같아.”  
“진짜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할머니는 날아가는 두루미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기로 했어. 언젠가 그곳에 직접 가서  
다시 메밀을 심고 친척들을 만날 거거든. 저 새들처럼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기로 했단다.”  
붉어지는 노을 속에서 할머니의 눈시울도 발갛게 물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등을 뒤에서 껴안고 임진강 여울 위에  
비치는 가을 노을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메밀밭과 두루미〉 중에서





# 통일세계상

동화로 만나요 2

제2회 통일창작 동화 공모전 수상작

# 통일세계상

## 동화로 만나요 ②

### 통일세상, 동화로 만나요 2

발행인 | 전경만

편집인 | 전경만

발행처 | 통일교육원

142-715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교육원(T. 02-901-7114)

발행일 | 2012년 9월 5일

심사위원 | 이상교, 송재찬, 길지연, 엄혜숙

글쓴이 | 송명훈, 김명완, 최만호, 김주원, 강지형, 김채린, 염예서, 정영훈, 최인서

그린이 | 최 상, 고윤희, 유 유, 최준규, 김정혜, 이수진, 강하라, 서상희, 최의선

기획편집·디자인 | RHK(주) 070-8620-8808

인쇄소 | 다라니 070-8620-8804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이 책에 수록된 그림과 이미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인 통일교육원의 서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수상작의 내용은 통일교육원의 정책추진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

인사말



#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준비된 통일은 축복입니다

통일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나요?

눈에 보이지 않아 실감이 덜할지 모르지만, 통일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하다, 행복한 통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의 통일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스스로 준비하는 사람,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통일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통일항아리에 조금씩 담아 통일재원을 마련하는 등 통일을 준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통일을 맞이하면, 통일은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축복을 안겨 줄 것입니다.

경의선 철도를 타고 북한을 거쳐 유럽으로 수학여행 가는 상상을 해보았나요? 남과 북이 한 팀으로 올림픽에 출전해 메달을 따고,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속의 통일한국으로 우뚝 서는

그날……. 통일이 되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제2회 통일창작동화 공모전〉을 통해 출판된 통일동화가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통일의 씨앗을 심어 주리라 믿습니다. 그 씨앗이 어린이들의 손에 의해 통일의 꽃을 피우고 번영의 열매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백두산과 한라산을 한달음에 달려갈 수 있는 그날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2012년 9월

통일교육원장 **전 경 만**

# 목차

## 4•인사말

일반부 최우수상

9•할머니의 메밀밭과 두루미 글 송명훈 | 그림 최 상



일반부 우수상

25•연평도 삼촌 글 김명완 | 그림 고윤희



일반부 우수상

43•회양목 담장 글 최만호 | 그림 유 유



중고등부 최우수상

65•어서 오세요, 한민족 양말공장입니다 글 김주원 | 그림 최준규



중고등부 우수상

83•건빵 글 강지형 | 그림 김정혜

중고등부 우수상

99•너도 왼발잡이였어? 글 김채린 | 그림 이수진



초등부 최우수상

117•이건 기적이 아니야 글 염예서 | 그림 강하라



초등부 우수상

131•할머니의 사진 글 정영훈 | 그림 서상희



초등부 우수상

141•백두산 병대벌레의 선물 글 최인서 | 그림 최의선



★  
일반부  
최우수상  
★

# 할머니의 메밀밭과 두루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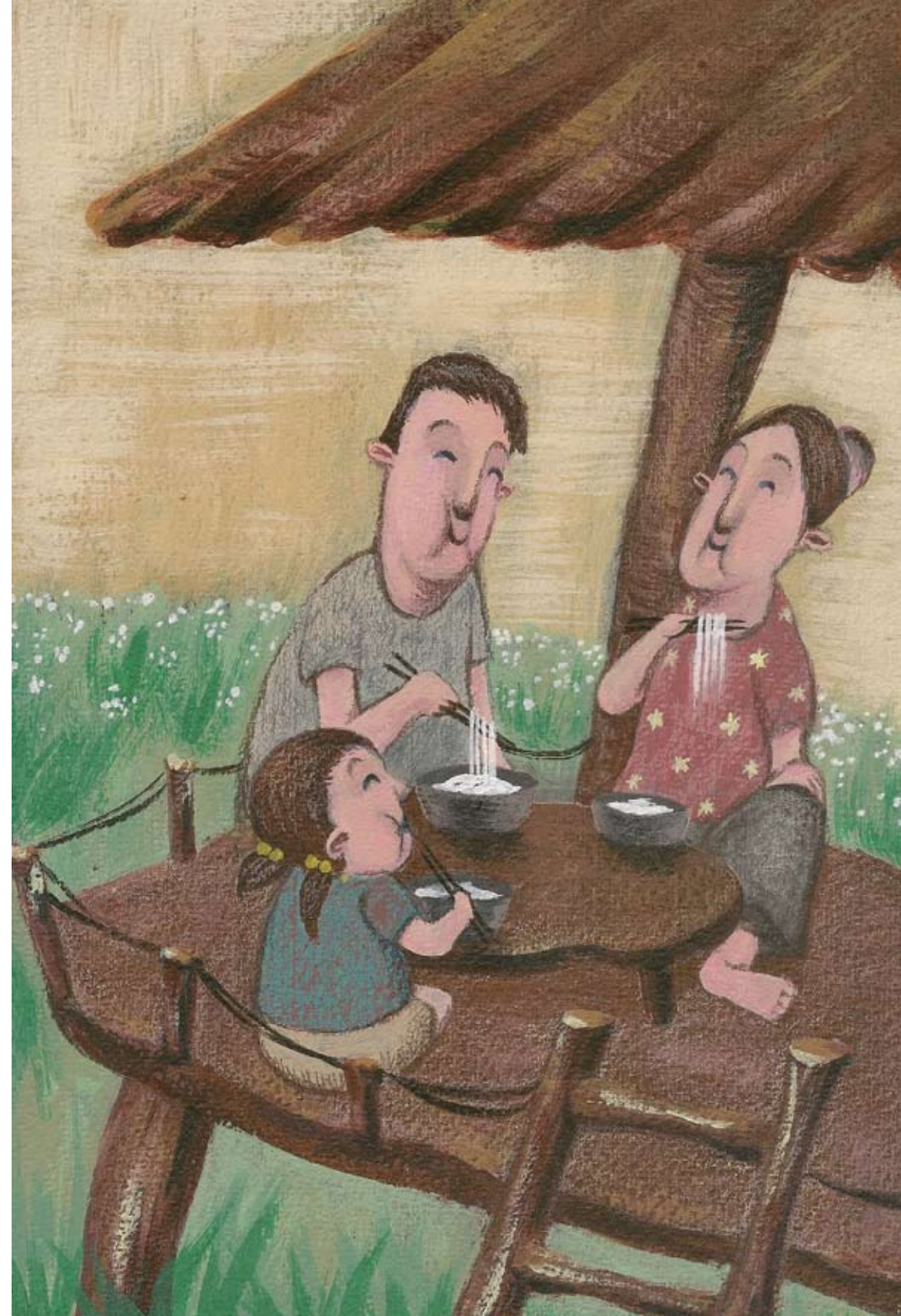
글 송명훈 그림 최 상



우리 할머니의 고향은 황해북도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어린 소녀였을 때 전쟁이 일어났고, 삼촌의 손을 잡고 잠깐 친척집으로 피난을 오셨답니다. 그런데 잠깐의 이별로 알았는데 육십년이 넘도록 백 리도 안 떨어진 고향마을에 못 돌아갔다면 늘 안타까워하셨습시다.

할머니는 고향에서 멀지 않은 임진강 옆 연천에서 평생을 사시며, 옛 고향집에 돌아가 두고 온 부모님과 형제들을 만나기를 소원하셨습시다.

그러나 열두 살 소녀가 어른이 되고,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었어도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습시다.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또다시 혼자가 된 할머니는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북



쪽의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살고 계십니다.

**그런 할머니가** 언제부턴가 메밀밭을 가꾸시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고향집 주변엔 넓은 메밀밭이 있었고, 가족들과 함께 메밀국수를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할머니는 메밀밭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생각하시나 봅니다.

할머니는 무더운 여름날에도 늘 메밀밭에서 늦은 시간까지 메밀을 가꾸셨습니다. 늦여름 8월의 밤이면 할머니의 메밀밭에는 눈처럼 희고 소박한 메밀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할머니는 둥근 보름달빛 아래 비친 흰 메밀밭을 바라보며, 고향 마을과 행복했던 어린 시절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한 번도 밭에서 메밀을 수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메밀을 심고 자라는 것만 볼 뿐 메밀밭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할머니, 왜 저 메밀들을 거둬들이지 않아요?”



“저 메밀들은 내가 먹으려고 심은 게 아니기 때문이란다.”

“그럼 저 메밀들은 누가 먹어요?”

“먼 데서 온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심은 거지.”

아마도 할머니는 통일이 되고

가족들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메밀을 키우는 것이라고 나는 짐작만 하였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텔레비전을 보던 중 너무나 놀라 시며 저를 불렀습니다.

“세미야, 저기가 할머니 고향이야. 그런데 왜 저렇게 황폐하고 민둥산이 됐을까? 도대체 저 방송 내용이 무슨 뜻이니?”

방송에서는 남쪽에서 띄워 보낸 풍선들이 황해북도에 도착한다는 뉴스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남쪽에서 풍선을 띄워 보내면, 바람을 타고 50분 만에 저기에 도착한다고 하네요.”

“그래? 무슨 풍선을 어떻게 띄워서 저기를 간다는 거니?”

저는 할머니에게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풍선의 원리와 띄우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후로도 풍선과 바람에 대해 자주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새로운



비밀이 생긴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늦가을이 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메밀이 탐스럽게 여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메밀밭에서 제일 좋은 종자들만 손으로 골라내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메밀 이삭들을 그냥 밭에 두셨습니다.

“할머니, 아깝게 왜 메밀들을 그냥 뒀어요? 수확해서 음식이라도 만들어 드시지 그래요?”

“세미야, 저 메밀들은 손님을 위한 잔칫상이야. 멀리서 돌아온 할머니의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한 작은 선물이란다.”

그즈음 나는 할머니의 손님들이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손님들은 한 무리의 두루미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메밀을 키우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두루미 한 가족이 할머니의 메밀밭에 둥지를 틀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커다란 두루미의 덩치에 놀라셨지만 두루미들이 메밀을 먹고 안전하게 지내도록 하기 위해 수확을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두루미 가족들은 매년 할머니의 메밀밭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북쪽에서 날아온 두루미 가족들을 고향

에서 찾아온 손님을 맞이하듯 일 년 내내 준비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메밀밭에는 두루미 가족과 많은 물새들이 모여들었고, 할머니는 혹시나 누가 새들을 방해라도 할까 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메밀밭을 가꾸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성을 알았는지, 할머니만은 메밀밭에 가까이 가도 두루미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두루미 가족에게 사료와 미꾸라지 같은 먹이를 선물하고 겨우내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 주었습니다. 두루미는 할머니에겐 두고 온 고향의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무렵이면 두루미들도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못내 아쉬워하면서 두루미들을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수확한 메밀 종자의 반을 풍선에 담아 함께 북녘으로 띄워 보내셨습니다. 메밀 종자를 담은 하얀 풍선들이 두루미 가족과 함께 하늘 멀리 사라질 동안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북쪽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마도 할머니의 마음은 그 풍선들이 할머니 고향 마을에도



착해서 할머니의 메밀밭처럼 소담하게 자라나 주기를 기대하고, 그 메밀꽃들을 혹시 남아있을지도 모를 가족들이 바라봐 주기를 소원하셨나 봅니다.

어느 날 할머니에게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국가에서 이산가족 면회를 위한 신청 조사를 받은 것입니다.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면회 신청하셨지만, 안타깝게도 할머니를 찾는 북쪽의 가족들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가족들이 모두 돌아가셨거나, 할머니를 잊어버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머니는 크게 낙담하셔서 그만 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올해 메밀밭을 가꾸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에 자신을 기억해 주는 형제들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

시고 너무나 외로워서 병이 생겼나  
봅니다.

할머니의 병은 점점 깊어져서 가을이 되어도 거동할 기력 없이 누워만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의욕을 되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할머니 고향 마을에



대한 사진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할머니가 뛰어놀았던 산과 마을은 지금 황폐한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 속에서 신기한 광경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여기 할머니 고향 맞죠?”

할머니는 ‘고향’이란 말에 돋보기를 쓰고 사진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글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왜 그러는데?”

“여기 이 산이요, 이 산 주변을 좀 보세요. 이게 작년에 찍은 사진이고 이건 올해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작년에는 없던 메밀밭이 보여요. 밭이라기엔 좀 엉성하지만 이거 메밀꽃 아니에요?”

사진들 속에는 산등성이에 듬성듬성 흩어져 피어 있는 하얀 메밀꽃들이 보였습니다.

“이거 혹시 할머니가 날려 보냈던 메밀 씨앗들이 자라난 것 아닐까요?”

“글쎄다, 그 메밀 종자들이 정말 우리 고향에 도착했을까?”

“그럼요! 할머니 아니면 누가 이런 인적 없는 곳에 메밀을 이렇게 심었겠어요. 할머니의 풍선들이 고향에 간 게 틀림없을 거예요.”

“그래, 정말 그랬으면 좋겠구나. 내 정신 좀 봐! 그럼 우리 두 루미들은 어떻게 됐을까? 세미야, 어서 채비 좀 해라, 나랑 같이 메밀밭에 가보자구나.”

**할머니는 너무 오랜만에** 기운을 차리고 임진 강변의 메밀밭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메밀밭 자리에는 역새와 잡초만 우거져 있었습니다. 이맘때면 날아와 있어야 할 두루미 가족들도, 물새들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게을러서 이 애들을 제대로 보살필 생각을 못했어. 말 못 하는 짐승들이 얼마나 서운했을까?”

할머니는 탄식하며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강변의 여울과 주변의 풀숲을 뒤져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슴푸레하게 해가 저물 즈음 북쪽 하늘에서 커다란 날갯짓을 하며 두루미 가족들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역새와 잡초로 무성한 할머니의 메밀밭 중간에 내려앉았습니다. 두루미들은 먹을 것이 없어졌어도 할머니의 메밀밭을 기억하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너무나 반갑고 기뻐서 부둥켜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비록 할머니의 가족을 찾지는 못했지만 할머니를 기



억하고 사랑하는 또 하나의 가족들이 있지 않고 할머니를 찾아와 준 것입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부쩍 기운을 차리고 강변으로 나가 두루미의 음식을 살피며 정성껏 두루미 가족들과 물새들을 돌보셨습니다.

**두루미 가족과** 할머니의 이야기는 곧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메밀밭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아무도 밭 주변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멀리서 두루미들과 할머니의 교감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두루미 할머니’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두루미 가족들이 또 한 겨울을 나고 새봄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두루미들과의 이별을 준비하시던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올해는 메밀 씨앗 풍선 안 띄우세요?”

할머니가 방긋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세미야, 이제 할머니는 풍선을 띄우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할머니는 이미 그곳에

서 온 답장을 받았거든.”

“네? 답장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하얀 풍선 조각을 꺼내 보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내가 띄워 보낸 풍선들 중 한 조각일 거야. 그런데 이 조각이 저 두루미의 발에 걸려 돌아왔단다. 아마 나를 대신해 고향에 가서 메밀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해 준 것 같아.”

“진짜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할머니는 날아가는 두루미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기로 했어.

언젠가 그곳에 직접 가서 다시 메밀을 심고 친척들을 만날 거거든. 저 새들처럼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기로 했단다.”

붉어지는 노을 속에서 할머니의 눈시울도 발강게 물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등을 뒤에서 껴안고 임진강 여울 위에 비치는 가을 노을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할머니가** 올해 봄 갑작스런 노환으로 돌아

★  
일반부  
우수상  
★

## 연평도 삼촌



글 김명완 그림 고윤희

가셨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고향에 돌아갈 희망을 버리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고향 방문 대기 순번은 5,000번이 조금 넘게 남은 채로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메밀밭은 이제 새롭게 가꾸어지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유지를 이어받아 두루미 가족을 위한 생태 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두루미 할머니가 고향을 그리워했던 가슴 아픈 사연을 전해 듣고, 두루미 가족들과 물새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할머니의 따뜻했던 등과 할머니의 슬픈 미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할머니와 같은 아픔과 역사가 되풀이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는 아마도 두루미가 되셨을 것입니다. 과거의 가족들을 만나러 자유롭게 북쪽의 하늘을 날아가 고향집 앞에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하얀 메밀꽃이 피었다 저물고, 서늘한 임진강 바람에 탐스러운 메밀 이삭들이 고개를 숙이면 할머니는 힘찬 날개를 펼치고 나를 보러 찾아오실 것입니다.



**삼촌은** 오늘도 꽃게를 보내지 않았다. 오늘이 금요일인데 주말 동안 도대체 뭘 먹으면서 보내라는 거야? 난 참지 못하고 엄마의 휴대폰으로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삼촌이 전화를 받자마자 막무가내로 짜증을 냈다.

“삼촌, 왜 꽃게 보내는 걸 까먹은 거야!”

삼촌은 특유의 ‘허허허’ 웃음소리를 연발하며 내 심술을 애교로 받아들였다.

“허허허! 형욱아, 요즘 꽃게 철이라서 너무 바쁘네. 삼촌이 내일 보낼게! 꼭 약속할게.”

“내일은 토요일이거든!”

“허허허! 토요일이구나. 그럼 월요일에는 꼭 보내 줄게. 이번

주말만 지나면 금방이야.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지?”

“삼촌 어떻게 기다려! 월요일에 보내면 화요일에 도착하는 거잖아!”

“허허허! 미안하다. 허허허! 월요일에는 꼭 보내 줄게, 꼭!”

그때 주방에서 나온 엄마가 휴대폰을 가져갔다.

“삼촌, 미안해요. 형욱이가 워낙에 꽃게를 좋아해서. 천천히 보내 줘도 돼요.”

나는 안 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월요일에는 꼭 보내라고. 내 심술은 엄마의 꿀밤으로 끝났다. 나는 달력에다가 빨간 펜으로 다음 주 화요일인 23일에 동그라미를 쳤다. 11월 23일.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꽃게가 와야 한다. 만약에 꽃게가 도착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삼촌이 있는 연평도로 찾아갈 생각이다. 물론 한번도 가본 적이 없어 어떻게 가는지는 모른다. 아빠가 위험한 곳이라고 데려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삼촌이 연평도로 간 건 3년 전의 일이다. 바다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군대도 해군을 다녀온 삼촌의 선택이었다. 삼촌은 연평도로 간 첫해부터 꽃게를 잡아서 우리 집에 보내 줬다. 그 맛을 한번 본 뒤로 나는 꽃게 마니아가 되었다.

꽃게를 좋아하는 건 맛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연평도 꽃게는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다. 삼촌은 연평도에서 1년

에 딱 두 번만 꽃게를 잡을 수 있다고 했다. 봄철인 4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가을철은 9월부터 11월까지. 그때가 세상에서 가장 싱싱한 꽃게를 먹을 수 있는 날이다.

하! 빨리 먹고 싶다. 찌개에 넣어 같이 끓여도 너무 맛있고 양념에 버무려도 맛있다. 간장게장은 두말하면 입 아프다. 오늘 하루 참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만 참으면 된다. 화요일이 되면 삼촌의 꽃게가 도착한다. 2010년 11월 23일 화요일.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수업을 마치고 경비실로 가면 삼촌이 보낸 하얀 아이스박스가 도착해 있을 것이다. 그 안에는 나를 기다리는 싱싱한 꽃게들이 한가득! 히히, 기다려라 꽃게 들어!

갑자기 그동안 삼촌한테 화를 낸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나도 이렇게 빨리 화요일이 올지 몰랐기 때문이다. 꽃게를 받으면 삼촌한테 전화해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미안하다는 말도 전해야겠다.

수업이 끝났다. 나는 같이 하교하는 친구들을 뒤로하고 먼저 달리기 시작했다. 학교 정문을 나와서 오른쪽에 있는 횡단보도

를 건넜다. 물론 파란불은 지켰다! 이제 상가들이 준비해 있는 인도를 따라 십오 분만 뛰어가면 아파트 경비실이 나온다. 오늘따라 유난히 이 길이 길어 보였다.

한참을 달려가는데 식당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다. 새로 생긴 맛집인가? 간판을 보니까 원래 있던 식당이었다. 걸음이 나도 모르게 느려졌다. 빨리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식당 앞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꽤 심각했다. 어른들의 입에서는 심심찮게 ‘전쟁’이란 단어가 나왔다. 전쟁이라니!

텔레비전을 봤다. 조그만 마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저기가 어디지? 그때 뉴스의 자막이 눈에 들어왔다.

‘연평도 포격!’

가슴에 돌덩어리가 ‘쿵!’ 내려앉았다. 저 마을이 삼촌이 살고 있는 연평도라니! 내가 뭘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머릿속이 어지럽고 뉴스에서 본 광경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무서웠다.

경비실도 그냥 지나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어서 계단으로 올라갔다. 꽃게는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을 때 상황이 심각하단 걸 깨달았다.





회사에 있을 아빠의 구두가 신발장에 있었던 것이다. 엄마와 아빠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를 걸었다.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간식으로 사과와 우유를 내줬다. 아빠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휴대폰을 통해서 나오는 컬러링으로 삼촌에게 전화를 건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아빠와 엄마한테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불안해서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간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으니깐 엄마가 말을 꺼냈다.

“괜찮을 거야, 걱정 마.”

삼촌은 정말 괜찮을까? 삼촌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다. 나한테 보내 줄 꽃게를 잡는다고 괜히 다치지는 않았을지 걱정이 되었다. 아빠가 소파에 털썩 앉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와 나는 거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뉴스에서는 민간인 사망자 두 명이 확인됐다는 소식과 함께 6·25 이후 교전 중에 민간인 사망한 건 처음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나는 휴대폰을 붙잡고 있는 아빠에게 다가갔다.

“아빠, 6·25가 또 일어나는 거야?”

“아니, 전쟁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야.”

“여보, 삼촌은 연락이 안 돼요?”

아빠는 엄마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다음 나에게 말했다.

“형욱이는 학원 안 가도 되니까 게임하면서 놀고 있어.”

아빠의 말에 나는 엄마를 보았다. 엄마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아빠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전쟁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아. 삼촌도 괜찮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내 방으로 가서 게임을 시작했다. 미안하게도 게임은 너무 재밌었다.

삼촌과 연락이 된 건 그로부터 서너 시간 후였다. 삼촌은 섬 사람들과 함께 연평도를 나와 인천에 있는 찜질방에 있다고 했다. 우리 가족은 당장 차에 올랐다.

아빠와 엄마는 앞좌석에 나란히 앉고 나는 뒷좌석에 앉았다. 차에 오르기 전 엄마의 스마트폰으로 연평도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다. 연평도는 인천광역시에 속해 있으며 우리 집에서 100km나 떨어진 곳이었다. 그에 비하면 연평도와 북한은 10km 정도로 가까운 곳이었다. 그렇게 가까이 사는 사람들끼리 폭탄을 쏘다니 북한은 해도 너무 했다.

“저기다!”

아빠의 흥분된 목소리가 나를 깨웠다. 차창 너머로 손을 흔들고 있는 삼촌의 모습이 보였다. 내가 먼저 차에서 내려 삼촌에게 달려가 포옹을 했다. 생각해 보니까 이런 포옹은 처음이었다. 삼촌의 첫마디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형욱아, 오늘도 꽃게를 못 보냈네. 미안해.”  
 “삼촌, 꽃게는 천천히 보내도 돼.”  
 “허허허! 형욱이가 삼촌 걱정까지 다 해주네.”  
 “삼촌,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아! 형욱아, 꽃게 대신에 삼촌이 빵 줄까?”  
 삼촌은 손에 들고 있던 빵을 나에게 줬다.  
 “빵은 어디서 난 거야?”  
 “큰 제과점에서, 연평도에서 온 사람들에게 주는 거래. 삼촌은 많이 먹었으니까 형욱이 먹어.”  
 “그렇구나. 근데 삼촌은 우리 집에서 자면 되는데 다른 연평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  
 “응,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 저기 찜질방 보이지? 저기서 며칠 지낼 수 있게 해준대.”  
 간판에 ‘인스파월드’라고 적힌 건물이 보였다. 뭔가 몽클한 감동 같은 게 느껴졌다.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 갔을 때 같은 기분 좋은 말이다. 빵을 주고 잘 곳도 마련해 주다니…….

아빠와 엄마도 삼촌과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삼촌을 태우고 다시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나는 삼촌과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놀았다. 이제 마음이 편해졌다. 차창 밖으로 보이



는 사람들의 표정에서도 저마다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다.

“형욱아! 삼촌이 이번에 돌아가면 진짜로 꽃게 보내 줄게. 이제 꽃게 철도 거의 끝나 가니까 일도 조금 줄어들고 시간도 생길 거야.”

내가 대답을 하기 전에 아빠가 그 말을 막았다.

“성철아, 집에 가면 나랑 얘기 좀 하자.”

아빠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조금 걱정이 됐다. 아빠는 심각한 얘기를 할 때면 항상 목소리에 무게를 실어서 말을 한다.

집으로 들어가자 아빠와 삼촌은 거실에 앉았다. 나는 대화를 듣기 위해 열린 씻고 방으로 들어가서 자는 척을 했다. 하지만 문에 귀를 대고 거실에서 아빠와 삼촌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다. 아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배 타는 것도 위험한데 거기가 어디라고 또다시 가려고 그래. 가지 마!”

“형, 저 가야 돼요. 이제 연평도는 제 고향 같단 말입니다.”

“안 돼! 이런 사태가 생겼는데도 또 가려고? 형이 네 일자리 알아볼 테니까 이참에 여기서 살아.”

삼촌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런 식이면 한국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인데요.”

“그래도 북한하고 가까운 곳은 위험해!”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다시는 없을 겁니다.”

이번엔 아빠가 침묵을 했지만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면 늘 버럭 소리를 지른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이유가 뭐야! 연평도에 가려는 이유가 뭐냐고?”

큰소리에 놀란 나는 문에서 귀를 잠시 떼야 했다. 삼촌은 조용히 이유를 말했다.

“이런 일이 있다고 하나 들쭉 연평도를 떠나면 꽃게는 누가 잡습니까? 연평도에는 누가 남습니까? 저 같은 일반인들이 다 나가면 결국 연평도에는 군인만 남게 됩니다. 북한과 우리나라가 서로 마주 보는 곳에는 전부 군인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곳 연평도는 달라요. 서로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군인만 있는 게 아니란 걸 북한 사람들에게도 보여 주고 싶습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남한에도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저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밥을 먹고 있구나! 우리에게 총만 겨누고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나라

에 평화가 찾아왔을 때 더 이상 서로 총 겨눌 일이 없을 때 그 때가 되면…….”

삼촌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삼촌의 숨소리가 들렸다.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았다.

“그때가 되면 제가 잡은 꽃게를 굶주린 북한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삼촌의 말이 끝나자 모두가 침묵을 지켰다. 나도 가만히 있었고, 거실에 있는 아빠와 엄마도 그랬고, 어항에 있는 물고기도 그랬다. 단순히 조용히 있기보다는 삼촌이 한 말을 되새겼을 것이다. 적어도 그 순간 나는 그랬다. 그때 그 침묵 사이로 쾌중시계가 자정을 알리며 울었다.

땡... 땡... 땡…….

2010년 11월 23일이 끝나고 24일이 되었다. 아주 무서웠던 하루가 그렇게 지나갔다.

삼촌은 내 방에서 나와 함께 잠을 잤다. 근데 이상하게도 삼촌은 계속해서 뒤척였다. 왜 그러지? 삼촌은 베개에 머리를 붙이는 순간 잠이 드는 스타일이다.

삼촌은 조용히 일어서더니 문을 열고 내 방을 빠져나갔다. 삼촌이 나간 방에 나 혼자 누워 있으려니 조금 어색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나는 방문을 살짝 열어 그 틈으로 거실을 내

다봤다. 삼촌은 거실을 지나 베란다로 나갔다. 잠시 가만히 서 있던 삼촌은 고개를 들어 달을 보았다. 달빛이 삼촌과 베란대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삼촌 곁으로 갔다. 삼촌은 달을 보던 눈을 거두고 나를 보았다.

“삼촌이 깨운 거니?”

“아니, 그냥 나온 거야.”

삼촌은 내 머리를 쓰다듬더니 다시 달을 보았다. 나도 달을 보았다.

“삼촌, 달은 왜 보는 거야?”

“형욱아, 여기서 저 달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밖에 없을까?”

“몇 명 있겠지.”

“고개만 들면 저 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북한에도 있겠지?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빠한테 물어볼까? 스마트폰으로 검색 한번 해볼까?”

“그런 건 검색한다고 나오는 게 아냐. 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삼촌도 잘 모르지만 서로 미워하지 않았으면 해.”

“그런데 미워할 짓만 골라서 하잖아, 북한이! 삼촌한테 폭탄도 쏘고.”

“그건 맞아. 잘못된 거지.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해.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 돼. 근데 북한에는 폭탄을 쏘는 군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삼촌처럼 화해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거야. 형욱이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말았으면 해. 그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줄어들 거야. 이 삼촌도 연평도에서 안전하게 꽃게를 잡을 수 있고 말이야.”

“삼촌, 원래 이렇게 말을 잘했어?”

“허허허! 그냥…… 허허허!”

삼촌과 나는 한참 동안 같이 달을 보다가 방으로 돌아갔다. 삼촌과 나는 나란히 누워서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삼촌은 연평도에서 같이 온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떠났다. 삼촌의 마지막 말 때문에 나는 또 미안해졌다.

“연평도에 돌아가는 대로 꼭 꽃게 보내 줄게. 기다려.”

꽃게보다는 삼촌이 더 좋은데……. 내 맘도 모르는 삼촌. 하지만 꽃게가 먹고 싶어지는 건 사실이었다.

★  
일반부  
우수상  
★

# 회양목 담장



글 최만호 그림 유 유

며칠 후 뉴스에서 연평도 사람들이 꽃게잡이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경비실 아저씨가 나를 불렀다.

“형욱아, 택배 왔는데 가져갈 수 있겠냐?”

경비 아저씨는 하얀 아이스박스를 보여 줬다. 내가 양팔을 짝 뻗어야 잡히는 크기의 박스였다. 난 그게 뭔지 금방 알아챘다. 혹시나 해서 보낸 이의 주소를 봤다. 내 예상이 맞았다. 주소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삼촌이 보낸 꽃게였다. 집으로 가져가 식탁에서 엄마와 함께 아이스박스를 열었다. 싱싱한 꽃게가 가득했다. 엄마와 나는 동시에 ‘와!’ 하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오늘 저녁은 이 꽃게로 우리 가족이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삼촌의 ‘허허!’ 하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너희 둘, 조회 끝나고 교무실로 와.”

선생님은 아직도 씩씩대고 있는 영민이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민이가 내 책상만 넘어오지 않았어도 교무실에 갈 일은 없었을 텐데 녀석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영민이는 옆집에 사는데 학교에서까지 짹짹이라는 게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께 짹짹을 바꿔 달라고 말했지만 한 번 짹지어진 걸 어떻게 바꾸느냐며 안 된다고만 합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 나쁜 자식아!”

나는 영민이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영민이의 책이 내 책상으로 넘어왔습니다. 영민이는 북한처럼 호시탐탐 내 책상을 넘어왔습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힘껏 녀석의 책을 밀쳐냈습니다. 그렇게 해도 서로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 넘어가고 싶어 넘어갔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넘어간 걸 가지고 왜 그렇게 화를 내. 아침부터 재수 없게…….”

“뭐, 재수 없게? 말 다했어?”

“그래, 다했다. 어쩔래?”

“너, 이 자식!”

나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앉은 채로 영민이를 확 밀었습니다. 그렇게 세계 밀친 것도 아닌데 영민이는 교실 바닥에 나뿩굴 었습니다.

“너, 이 자식 다했어?”

영민이도 지지 않고 덤볐습니다. 둘이 서로 엉겨 붙어 싸우는데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민숙이가 선생님 오신다고 소리친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반 아이들이 싸우면 교무실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고는 아침 수업이 시작될 때까지 교무실 앞에 서있게 했습니

다. 두 손을 높이 들고서 말  
입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교무실로 들어오며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너석들, 또 싸웠구나. 아무래도 이 녀석들은 전생에 부부였나 봐?”

“그러게 말이에요. 전생에 원수였으면 사이가 좋을 텐데, 부부였으니 이렇게 자주 싸우죠. 전생에 친했던 사이일수록 더 싸운다잖아요.”

선생님들은 지나가면서 꿀밤 한 대씩 먹였습니다. 2반 선생님은 어찌나 손이 매운지 눈물이 핑 돌 정도였습니다. 이게 다 영민이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자, 녀석이 더 미워졌습니다. 나는 넘어지는 척하며 일부러 영민이의 발을 짹 밟았습니다.

“너, 이 자식! 왜 남의 발을 밟고 난리야.”

영민이도 지지 않고 내 발등을 밟으려고 했습니다.

“너희 둘, 이리 와. 인석들이 여기까지 와서도 반성은 안 하고 또 짹질이야.”

선생님은 화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야단맞을까 봐 높이 든 손을 내리지도 않고 선생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모두 내일 부모님 오시라고 해.”

‘선생님, 그것만은 안 돼요.’

나는 속으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빠와 영민이 할아버지는 요즘 더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길에서 만나



도 서로 아는 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마!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뭐가 나 때문이야. 네가 내 발을 밟아서 그렇지.”

우리는 교실에 와서도 서로 넘어오지 못하게 책상 가운데에 파일박스를 올려놓았습니다.

‘어찌지? 엄마한테 말씀드려도 틀림없이 아빠가 오신다고 할 텐데…….’

아빠는 영민이네와 상관있는 일이면 뭐든지 나섰습니다. 쿫대를 납작하게 해놓고야 말겠다는 듯 진지했습니다. 나는 저녁을 먹고 나서도 선생님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영민이네와 우리 집은** 이웃사촌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의 집들은 모두 회양목 담장입니다. 아니 모두는 아닙니다. 영민이네와 우리 집 사이엔 높은 벽돌담이 있으니깐요. 도둑이 걱정이었다면 사방을 높은 벽돌담으로 쌓았어야 하는데 다른 곳은 회양목 담장 그대로입니다. 영민이네와 마주 보는 곳만 높은 벽돌담입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벽돌담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른 집과 마찬가지로 영민이네와 우리 집 사이에도 회양목 담장이 있었

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 영민이 할아버지가 땅 측량을 하고부터 높은 담이 쌓였습니다. 영민이 할아버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땅을 찾겠다고 측량기사 아저씨를 불렀고, 우리 땅이었던 회양목 담장 안쪽에 빨간 말뚝을 박아 놓았습니다.

아빠는 어차피 팔 땅도 아닌데 그동안 측량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그렇지 남의 집 마당에다가 말뚝을 박아 놓는 법이 어디 있냐고 따졌습니다. 영민이 할아버지도 지지 않았습니다. 측량이 잘못되었으면 바로잡는 게 옳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민이네와 우리 집 사이에는 큰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늦은 오후, 아빠는 회양목을 뽑아내고 거기에 벽돌을 높이 쌓았습니다. 까치발을 딛고 서도 담장 너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영민이 할아버지는 말뚝 박은 땅을 찾겠다며 경찰서장을 찾아갔고, 그 소문은 금방 아빠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나쁜 노인네!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지.”

아빠의 얼굴이 빨갱게 달아올랐습니다.

늘 회양목 담장을 뛰어넘어 가 놀던 영민이와 나는 벽돌 담장을 돌아서 만나야 했습니다. 벽돌 담장이 쌓인 후, 영민이 할



아버지와 아빠는 길에서 만나면 서로를 피했습니다. 친척보다 친하게 지내던 이웃사촌이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전에 회양목 담장을 오가던 웃음소리도, 떡도, 과일도 모두 벽돌 담장이 삼켜 버렸습니다. 회양목 담장 옆 서로 마주 보던 작은 장독대도 높은 담을 등받이 삼아 돌아앉았습니다. 서로 바라볼 수 있는 낮은 담장이 사라진 이웃은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친구야, 오늘부터 영민이랑 놀지 마라. 그런 집이랑 놀면 너도 같은 사람 된다.”

아빠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민이** 할아버지와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북쪽에 고향을 가진 실향민이었던 할아버지들은 휴전선이 싫다며, 처음 집을 지을 때 회양목 담장조차 없애자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담이 마음에도 선을 긋게 만든다고요. 동네 사람들은 우리 할아버지와 영민이 할아버지의 우정을 늘 부러워했습니다. 전쟁이 빼앗아 간 고향을 그리며 돌아갈 수 없는 마음을 서로 위로해 주다 보니 가족처럼 친해진 것입니다.

영민이 할아버지가 왜 우리 집 앞마당에 붉은 말뚝을 박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보아도 영민이 할아버지의 행동은 억지이기 때문입니다. 남쪽을 향해 미사일이나 대포를 발사해 놓고 우리는 안 했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북한처럼, 영민이네 할아버지는 숨을 몰아쉬며 측량기사 아저씨를 따라다니면서 “여기까지가 우리 땅 맞지?”하고 결국 우리 집 마당에다 붉은 말뚝을 꽂게 만들었습니다. 어찌나 악착같이 따라붙는지 측량기사 아저씨는 우리 집 앞마당에 대충 말뚝을 박아 놓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설령 아저씨네 땅이 우리 앞마당을 넘어왔더라도 남의 집 마당에다가 말뚝을 박아 놓는 법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 아빠는 너무 기가 막혀 그냥 너털웃음을 웃다가 영민이 할아버지가 정색을 하는 바람에 검게 그을린 얼굴이 더 검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내 땅에다 말뚝을 박는데 무슨 상관이야?”

“늘 아저씨를 아버지처럼 생각했는데 정말 이리실 거예요?”

아빠도 영민이 할아버지가 너무 정색을 하며 말씀하시는 바람에 화를 참을 수 없는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암튼 내가 박아 놓은 말뚝엔 손대지 말게나. 아니면 법적으로 할 테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영민이 엄마도 어이가 없는지 할아버지의 팔을 잡아끌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화목하게 살고 있는 이웃끼리 말이에요.”

“어미, 넌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때 그렇게 후퇴만 하지 않았어도 난 고향에 갈 수 있었다. 그때 후퇴하는 바람에 고향을 앞에 두고서도 60년을 가지 못했다. 고향이 눈앞에 보이는데 말이야.”

할아버지 고향은 북철원이랍니다. 날씨 맑은 날은 살던 동네가 망원경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양보 못 해, 절대로!”

영민이 할아버지는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러시겠지 했던 아빠의 생각은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가면서 영민이네에 대한 나쁜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아빠는 마당에 꽃혀 있던 붉은 말뚝을 뽑아 영민이네 마당으로 던져 버렸고, 벽돌 쌓는 인부를 사서 회양목을 모두 뽑아내고 높은 벽돌담을 쌓았습니다.

영민이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웃집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들처럼 세상 누구보다도 우정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사이가 멀어지면서 우리도 멀어졌습니다. 처음엔 어른들의 눈을 피해 만나 놀던 우리는 차

츄 눈치를 보다가 이상하게 미워하는 마음이 짝이 돌아나듯 가슴속에 생겨났습니다.

없던 벽돌담이 생겨나고 눈과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되면서 마음으로 통하던 문은 커다란 철문처럼 닫혀 버렸습니다. 보이지만 넘을 수 없는 휴전선처럼 우리는 서로의 마음에 넘을 수 없는 선을 그어 버린 것입니다.

‘어쩐담, 엄마한테만 몰래 말해서 학교에 오시라고 할까?’

아빠에게 비밀이 없는 엄마니까 내가 그렇게 말해도 틀림없이 아빠가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빠가 학교에 오신다고 할 게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빠와 영민이 할아버지가 교

무실이 떠나갈 듯 싸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을 모시고 오지 않으면 선생님께 된통 혼날 것이고요. 아마도 교무실 앞에서 하루 종일 서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말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저녁 늦게서야 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빠가 갈 테니까. 이놈의 영감탱이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엄마와 내가 하는 얘기를 다 들었는지 화장실에서 나오며 아빠가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진구너, 절대로 영민이한테 지지 마라. 공부든, 달리기든 모두 말이다.”

아빠는 영민이네 이야기만 나오면 활화산처럼 눈빛이 불타올랐습니다. 뜨거운 용암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아이에게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영민이 할아버지도 알고 보면 불쌍하잖아요. 자식을 병으로 잃고 땅도 다른 사람에게 다 넘어가고 말이에요.”

엄마는 영민이 할아버지가 측은한 듯 말했습니다.

“그럴수록 그러면 안 되지. 이웃으로 하루 이틀 산 사이도 아니고 벌써 40년이야. 그렇게 오랜 기간 정을 나누며 살았으면 설령 잘못이 있어도 덮어 주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니야? 절대로



용서 못 해.”

아빠는 그렇게 말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른들은 그렇다 치고 아이들은 무슨 죄예요? 벌써 몇 번째냐고요?”

“이게 다 그 고집불통 영감탱이 때문이지 왜 내 탓이야. 친구 너도 영민이랑 절대로 놀지 말거라.”

“절대로 안 놀아요.”

나도 주먹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친구야**, 큰일 났어. 니네 아빠하고 영민이 할아버지가 교무실에서 싸우셔.”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병기가 달려오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그렇다니까. 선생님들이 말리는데도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니까.”

나는 교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벌써 영민이는 교무실 앞에 와서 자기 할아버지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영민이의 응원 소리에 할아버지는 힘이 나는지 교실바닥에

넘어졌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주먹을 날려요.”

선생님들은 싸움을 말린다며 모두 아빠에게 달려들어 아빠의 손과 몸을 잡았습니다.

“친구 아버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노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다니요.”

선생님들은 우리 아빠를 옥했습니다. 그 사이 영민이 할아버지는 아빠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잡혀 꼼짝도 못하던 아빠는 영민이 할아버지가 휘두른 주먹에 맞아 코피가 주르르 흘렸습니다.

아빠에게서 선생님들을 떼어 놓으려고 했지만 선생님들은 더 악착같이 아빠의 몸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영민이 할아버지가 휘두르는 주먹을 피하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다 맞았습니다.

“할아버지, 파이팅!”

영민이는 손뼉을 치며 할아버지를 응원했습니다.

“너, 이 자식!”

나는 영민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아빠를 꼭 붙들고 있던 선생님들이 나에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아빠를 잡았던 것처럼 내 팔과 몸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꿈쩍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 아빠를 쓰러뜨린 영민이 할아버지가 내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선생님들의 손에 잡힌 나는 두 눈을 꼭 감았습니다.

“진구야! 어서 일어나. 학교 가야지.”

엄마가 깨우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나는 ‘휴우!’ 하고 숨을 내뿜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그러게 일찍 자야지. 그렇게 늦게 자니까 못 일어나지.”

학교 가는 길에 영민이를 만났습니다. 나는 아는 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했던지 영민이가 먼저 말을 걸어 왔습니다.

“학교에 누가 오시기로 했냐?”

나는 대답을 안 하려다가 꿈속 일이 생각나 되물었습니다.

“니네 할아버지 오시냐?”

“아니, 엄마가 오신대, 할아버지 많이 편찮으셔.”

나는 ‘어디가?’ 하고 물어보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치매시래. 이제 아무도 못 알아보신다. 나보고 돌아가신 아빠 이름을 부르셔. 내 손을 잡고 고향 가자고 조르신다. 그러다가 갑자기 후퇴하지 말라고 소리치시고…….”



영민이는 묻지도 않은 말을 줄줄 얘기했습니다.

**나는 쉬는 시간에** 교무실을 기웃거렸습니다. 혹시 아빠가 오셨나 보려고 했지만 아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무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했습니다. 아마도 공부 시간에 다녀가신 모양입니다.

어제 놓아둔 파일박스가 영민이네 집과 우리 집 사이의 벽돌 담장처럼 아직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치우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영민이도 파일박스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나는 영민이와 말하고 싶진 않았지만 녀석의 엄마가 오셨었는지 궁금해서 슬쩍 물었습니다.

“니네 엄마 언제 오셨다가셨니?”

“그건 왜 묻냐?”

“니네 엄마도 할아버지처럼 우리 집 미워하냐?”

“무슨 똥판지 같은 소리야. 당연히 우리 엄마도 할아버지 편이지.”

친구의 목소리가 파일박스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야, 니네는 매일 싸우면서 뭘 그렇게 둘이 소곤거리냐?”

반장이 파일박스를 사이에 두고 소곤거리는 우리를 보고 말

했습니다. 나는 아이들 보기가 창피해서 그대로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반장이 지나가고 나는 다시 영민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침에 한 말 있잖아, 니네 할아버지 치매라며. 병원에 입원하신 거야?”

“응, 엄마 혼자 감당이 안 돼서 노인요양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하셨대.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니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할아버지가 이상해지셨대. 할아버지는 북쪽 고향도 못 가보고 죽는다고 하루 종일 중얼거리셨어.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철원 이북 고향땅을 지킬 수 있었을 거라고 말이야. 할아버지는 고향 땅을 두고 니네 아빠와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어. 할아버지의 기억은 전쟁 막바지에, 후퇴하던 때에 멈춰 버렸대.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 고향을 찾고 싶었나 봐.”

“그랬구나. 그런데 왜 우리 아빠에게 말 안 했어. 그러면 서로 오해도 없었을 텐데…….”

“엄마도 몰랐대. 할아버지가 너무 정색을 하고 말씀하셔서 말이야.”

나는 슬그머니 영민이와 나를 가로막고 있던 파일박스를 밀어냈습니다. 파일



★  
중고등부  
최우수상  
★

# 어서 오세요, 한민족 양말공장입니다



글 김주원 그림 최준규

박스를 넘어오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피식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무언가 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높은 벽돌 담장 대신 회양목 담장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영민이와의 사이에 높게 세워져 있던 마음의 담이 함께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벽돌 담장은요?”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단다. 고향은 담 너머에 있다고 영민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단다. 저 담만 없으면 고향에 갈 수 있다고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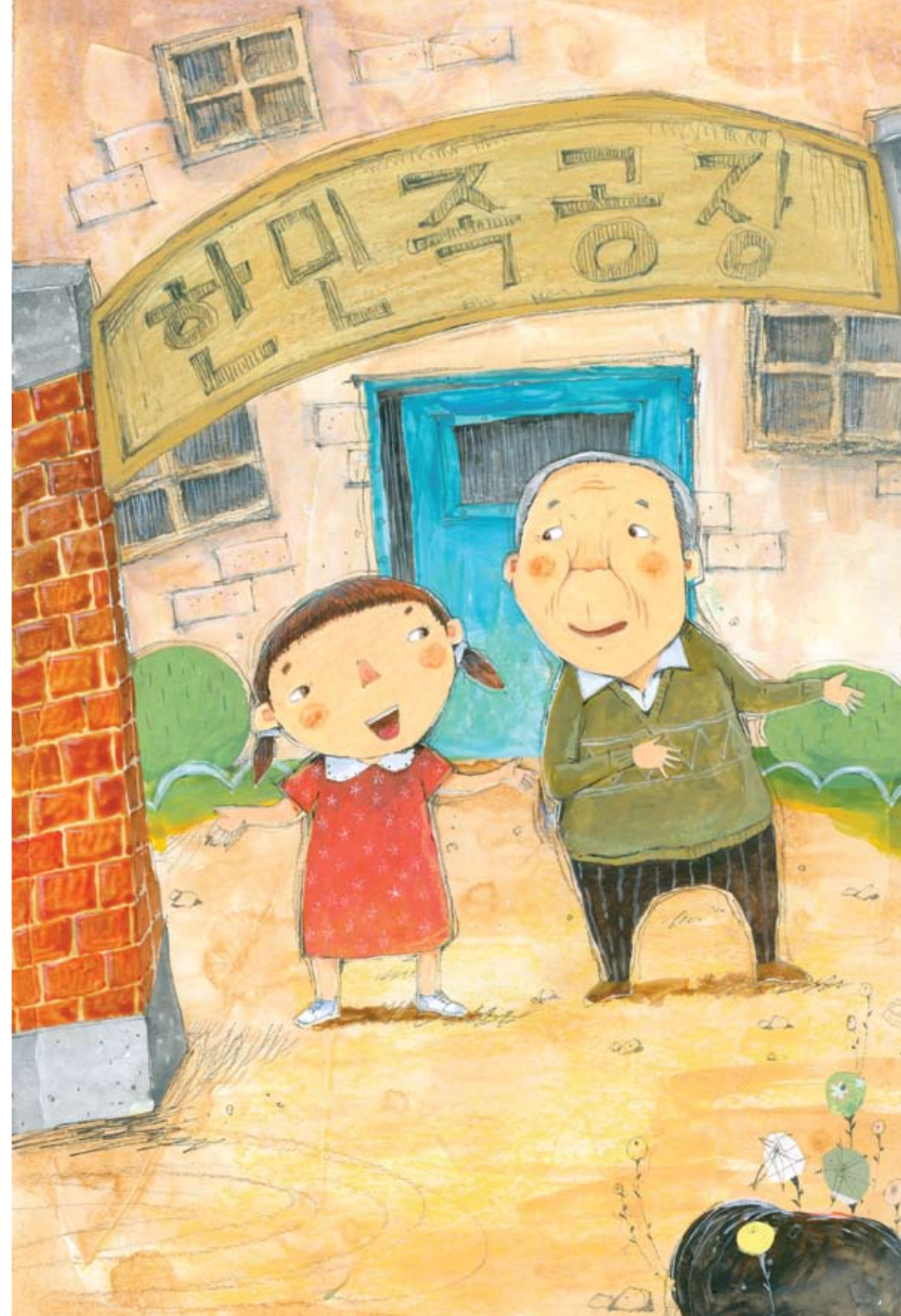
아빠는 나를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영민이네와 잘된 것 같아 기뻐했습니다.

나는 가방을 거실에 벗어 놓고 회양목 담장을 폴짝 뛰어넘었습니다. 담장을 쌓는 것도, 허무는 것도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민이도 회양목 담장을 폴짝 뛰어넘어왔습니다. 멍멍이도 따라 뛰어넘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불어온 산들바람에 감긴 눈이 슬며시 떠졌다. 눈을 비비고 주변을 살펴보았다. 할아버지의 병실이였다. 다시 보니 바로 눈앞에서 할아버지가 자고 있었다. 형광등에 비친 할아버지의 얼굴에 그늘이 생겼다. 가득 차있던 할아버지의 링거액이 많이 줄어 있었다. 링거액은 일정한 박자로 똑똑,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다. 몇 방울이 떨어지는지 세다가 어느새 나도 잠들어 버린 모양이었다.

검은 머리카락 하나 없는 할아버지의 흰 머릿결은 부드러워 보였다. 언제 이렇게 늙고 병들어 버리셨나. 나는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큰 소리로 코를 골았다. 혁수 오빠였다. 혁수 오빠는 할아버지 맞은편 침대 위에 누워 있었



다. 이불을 발로 차버리고 배꼽을 드러낸 채 자고 있었다. 입에 서는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 나왔다. 꿈지락거리는 혁수 오빠의 발이 눈에 익었다. 할아버지가 만든 양말이었다.

**할아버지는** 작은 양말 공장의 사장이다. 우리 집 바로 근처에 있어서 집 앞 놀이터 놀러 가듯이 자주 들르곤 했다. 친구들이 각자 학원으로 흩어져 버리거나 할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면, 나는 어김없이 공장으로 뛰어갔다. 공장 입구에는 늘 커다란 글씨들이 손님을 환영했다.

‘한민족 공장’

할아버지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다. 하지만 양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름이었다. 친구들도 무슨 양말 공장 이름이 그렇게 거창하냐며 비웃기도 했다. 나는 친구들의 반응에 내심 속이 상했다. 친구들에게 무슨 해명이라도 하고 싶었다. 결국 나는 할아버지를 쫓아가 물었다.

“할아버지, 왜 공장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야?”

할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건 할아버지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지은 거란다.

하물며 이런 양말들도 오른발 왼발이 모여야 한 켤레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잖니.”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고작 양말 가지고 이름만 거창하다고 친구들이 자꾸 놀린단 말이야.”

할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말을 이었다.

“양말 공장인 게 뭐 어때서?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막상 없으면 가장 불편한 게 양말이다. 양말이 있어서 발바닥에 물집도 안 잡히고, 추운 겨울에 발도 안 시리고, 발에 땀이 차도 신발을 편하게 신을 수 있잖니?”

할아버지가 재킷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였다. 낡은 흑백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할아버지를 꼭 빼닮은 한 가족이 아름드리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

“할아버지의 엄마와 아빠 그리고 남동생이란다. 너에겐 증조 부모님과 작은 할아버지지. 할아버지가 고등학생일 적에 찍었던 사진이야. 이 사진을 찍은 이후로 한번도 가족들을 만난 적이 없어. 바로 6·25 전쟁이 터져 버렸거든. 전쟁통에 모두가 정신없이 피난을 가던 중 할아버지만 길을 잃고 헤매다 남한으로 오게 되었지. 친구들이 자꾸 놀린다고? 사실 우리 공장에선 매달 정기적으로 많은 양말을 북한으로 보낸단다. 60년 전 잃어버린 가족들 중 한 명이라도 이 양말을 신고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해서 말이지.”

할아버지는 잠깐 입을 다물었다. 그리곤 소매로 눈가를 문질렀다. 눈가가 붉어 보였다.

“나라가 분단되어, 제 짝을 찾지 못해 고생 중인 북한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솔직히 말해, 양말을 기부한 건 순전히 내 가족 생각 때문이지. 그러니 친구들이 놀리면 당당히 말해 주렴. 할아버지 공장은 이름값 하는 멋진 공장이라고 말이야, 허허.”

나는 할아버지 공장에 잘 개켜 있는 양말들을 바라보았다. 새삼 양말들이 모두 근사해 보였다. 양말들이 모두 일어나 저 벽저벽 걸어 남북한을 오가는 상상까지 했다. 정말 그런 날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사실 ‘통일’이 크게 좋은 일인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할아버지처럼 가족을 만나지 못해 가슴 아픈 사람들이 없어진다면 더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게 아닐까. 오른발 왼발 새하얀 양말들이 함께 포개져 행복한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며칠 뒤였다. 그날도 어김없이 할아버지네 공장을 둘러갔다. 공장의 직원인 아저씨 이줌마들은 늘 그랬듯이 분주했다. 양말을 상자에 담고, 차로 옮기고, 불량 양말은 없나 하나씩 살펴보며. 그런데 아저씨 이줌마들 중 낯선 사람이 보였다. 아저씨라기보단 오빠처럼 보이는 젊은 사람이었다. 어느새 나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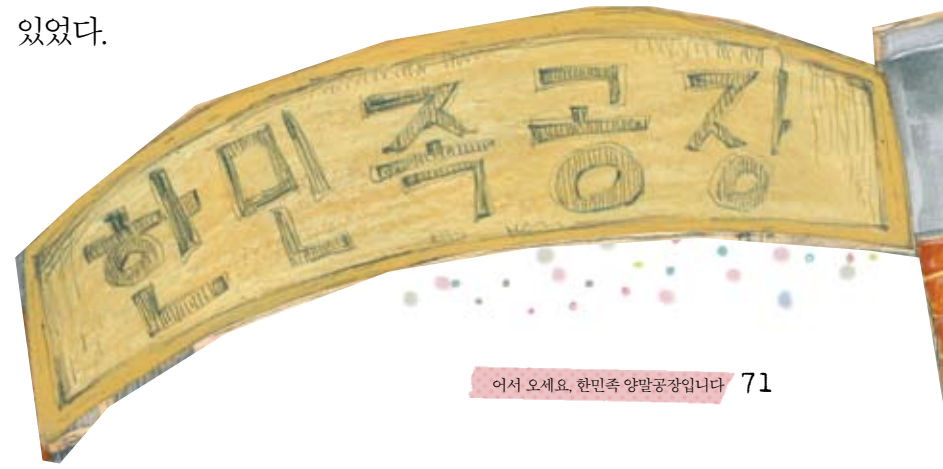
고개를 내밀어 얼굴을 뻗히 쳐다보았다. 머리는 잔디처럼 짧았고 얼굴은 갈색 크레파스를 칠해 놓은 것 같았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양말을 옮겨 담고 있었다.

“오빠 누구야?”

일에 열중하던 갈색 얼굴이 화들짝 놀랐다.

“누, 누구네까?”

허공을 둘러보다가 밑에 있던 나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익숙한 말투와 억양이었다. 그렇다면 이 오빠도 탈북자다. 공장 입구에는 ‘한민족 공장’뿐만 아니라 다른 글씨도 쓰여 있었다.



‘근로자 구함. 탈북자 우대’

그래서인지 공장에서 일하는 아저씨 아줌마들은 거의 대부분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들이었다. 덕분에 북한 사투리는 질리도록 많이 들을 수 있었다. 내 생각이지만, 아마 국어 시간에 어설피게 북한말을 읊었던 담임선생님보다 내가 훨씬 북한말을 잘할 것이다.

“내래 마저 일해야 되니, 어서 저리 가라우.”

목장갑을 낀 꺼칠꺼칠한 손으로 내 등을 떠밀었다. 나는 떠밀리면서도 끈질기게 말을 해댔다.

“오빠도 탈북자 맞지? 한국엔 언제 왔어? 무섭지 않았어? 오빠 이름이 뭐야?”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물어보았지만, 대답을 건진 건 마지막 질문뿐이었다.

“혁수. 내 이름이래 역수라 한다우.”

혁수 오빠와의 첫 만남이었다.

**할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이 속상해 할 것 같지만, 그날 이후로 난 할아버지보다 혁수 오빠를 만나려고 공장에 자주 들렀다. 혁수 오빠는 일하고 있을 때도 내가 옆에

서 말을 걸면 대답을 해줬고 쉬는 시간에도 항상 나랑 놀아 주었다. 꼭 진짜 오빠처럼 느껴졌다. 혁수 오빠도 내가 진짜 여동생 같단 말을 자주 했다.

“사실 난 북에서 혼자 내려왔다우. 북에는 부모님과 꼭 너 만한 여동생이 있는데 널 볼 때마다 여동생 얼굴이 아른거려서 리……. 열심히 돈 많이 벌어서 북에 있는 가족들도 다 남으로 데려올 생각이디. 그래서 꼭 호강들 시켜 줄 것이라우.”

문득 북에 있다던 혁수 오빠의 여동생이 보고 싶어졌다. 혁수 오빠와 닮은 아이라면 분명 금세 친해질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

**여느 날처럼** 혁수 오빠를 만나러 간 날이었다. 어째서인지 혁수 오빠도 할아버지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두 사람을 찾아 공장 곳곳을 돌아다녔다. 한참을 찾아도 두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꼭 술래뿐인 숨바꼭질을 하는



기분이었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공장을 나가려는데, 공장 뒤  
편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도 생각 없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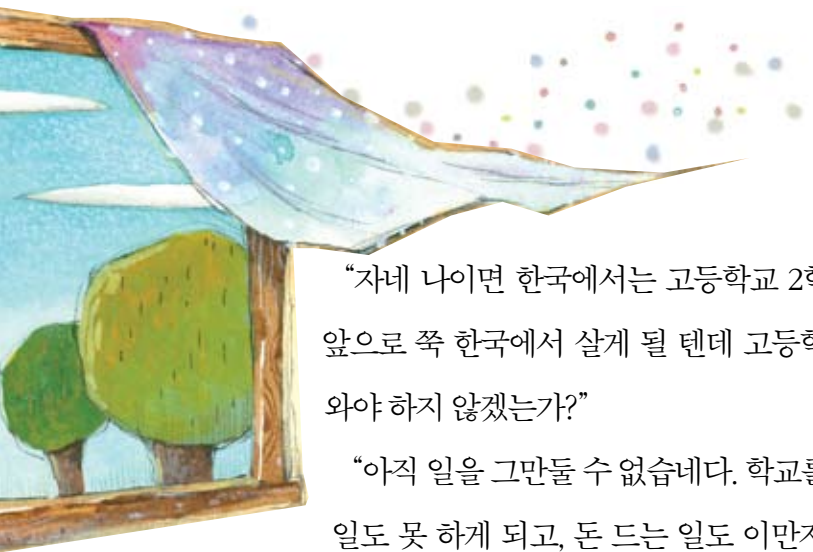
할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일 없습네다.”

평소와 다르게 꽤나 진지한 혁수 오빠의 목소리였다.

두 사람은 마주 보고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웬지 내가 끼어  
들면 안 될 것만 같은 분위기였다. 나는 벽에 몸을 기대고 얼굴  
만 내민 채 둘을 지켜보았다.





“자네 나이면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일세. 앞으로 쪽 한국에서 살게 될 텐데 고등학교는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아직 일을 그만둘 수 없습네다. 학교를 다니면 일도 못 하게 되고, 돈 드는 일도 이만저만이 아 납네다.”

“내가 책임져 준대도 그러네. 고등학교부터 찾아가 보게나. 난 우리 공장에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을 직원으로 둘 수 없네.”

“마음만으로도 정말 고맙습네다. 하지만 정말 일 없습네다.”

“며칠 더 생각해 보게나.”

할아버지가 뒷짐을 진 채 몸을 돌려 내 곁을 지나갔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까지 달려갔다. 현관에 도착해서 는 갓 잡은 물고기처럼 숨을 헐떡거렸다. 혁수 오빠가 학교에 간다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앞으로 혁수 오빠를 보기 힘들어 질 것이다. 그리고 혁수 오빠는 돈도 벌지 못해 북에 있는 가족 을 데려오는 날이 더 늦춰질 것이다. 할아버지는 왜 그런 쓸데 없는 걸 시키는지 이해가 안 됐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할아

버지가 내심 미워졌다.

**며칠 후** 할아버지가 쓰러졌다. 여느 때처럼 나는 공장에 서 놓고 있던 중이었다. 할아버지는 직원들 사이를 이리저리 바쁘게 다니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할아버지의 짧은 신음이 들렸다. 할아버지는 벽에 기대 구부정한 자세로 있었다. 그리고 배가 아프다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마치 내가 할아버지를 미워해서 생긴 일 같았다.

나는 구급차가 올 때까지 할아버지 옆에 서서 엉엉 울었다. 쉬지 않고 울어대서인지 목이 타는 듯 따가웠고, 머리는 바람 이 짹 찬 풍선처럼 곧 터져 버릴 것만 같았다. 혁수 오빠는 이 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초조해 하면서 울고 있는 나를 곁에서 달래 주었다.

“울지 마. 곧 구급차가 올 테니 그때까지 얌전히 기다리라우. 할아버지는 괜찮으실 거라우.”

그 말을 들으니 울음이 더 쏟아져 나왔다. 할아버지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이마에선 계속 식은땀이 흐 르고 있었다. 얼마 후 구급차가 도착했다. 사람들이 할아버지 를 구급차에 태웠다. 나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차에



앉았다. 그리고 울다 지쳐 거의 기절한 듯이 잠이 들어 버렸다.

**잠에서 깼다.** 잔뜩 부어 무거워진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다. 머리로 베고 있는 누군가의 다리가 푹신했다. 혁수 오빠였다. 앞에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있는 엄마와 아빠가 보였다. 그 너머로는 중환자실이라 적힌 커다란 문이 있었다. 안에 할아버지가 있는 게 분명했다. 당장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문 옆에 있는 등이 빨간불을 켜며 내게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불안해 보이는 색깔이었다. 내가 깨어난 것도 모르고 세 사람은 빨간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님께서 쓰러지시다니…….”

“그러게 말이야. 감기 한 번 없으셨던 아버지인데, 신장이 그렇게 심각하게 상해 있었다니.”

“많이 위독하신가요?”

“아직 정확한 결과는 안 나왔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아마 장기 기증이 필요할 거라고 말씀하시더군.”

“장기 기증은 아무한테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우선 기증자가 건강해야 서로에게 문제가 없는데……  
만약 기증자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나라도 나서야지.”  
“당신은 고혈압이 있잖아요.”  
“그래도 어찌겠어. 아버지부터 살리고 봐야지.”  
갑자기 혁수 오빠가 나를 옆으로 눕히고 일어섰다. 그리고  
급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자네, 어디로 가는가?”  
“잠깐 의사 선생님 뵈러 갑니다.”  
혁수 오빠의 발소리가 점점 빠르게 멀어졌다.  
다음날 아침, 혁수 오빠는 이동식 침대에 누워 할아버지와  
함께 수술실로 들어갔다. 오빠가 할아버지에게 신장을 떼어  
주기로 한 것이었다.

**혁수 오빠가** 깨어났다. 나는 너무 기뻐서 바로 달려가  
품에 안겼다.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아이고, 아, 아프다. 아직 상처가 덜 아물었으니 안기지 말  
라우.”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혁수 오빠도 내가 반가운 듯 활짝 웃고  
있었다.

“기런데 할아버지는 어디……?”  
나는 오빠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바로 옆 침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작게 속삭이듯 말했다.  
“오빠, 우리 할아버지 살려 줘서 고마워.”  
“뭐 그리 큰일을 했다고.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우.”  
오빠는 축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빛나는 혁수 오빠의 눈  
은 꼭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번뜩 사진 한 장과 전에 할  
아버지와 나눴던 대화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오빠, 이건 비밀인데…… 옛날 작은 할아버지 사진이랑 지  
금 오빠랑 무지 닮았다. 그리고 작은 할아버지도 북한에 계신  
대.”



★  
중고등부  
우수상  
★

## 건빵

짙은 갈색인 혁수 오빠의 두 눈이 솔방울만큼 커졌다. 혁수 오빠와 나는 자고 있는 할아버지를 돌아보았다. 창틈에서 쏟아지는 따스한 햇볕이 형광등 불빛을 몰아내고 할아버지를 비췄다. 할아버지도 상처 부위가 아픈지 꿈, 소리를 내며 옆으로 살짝 몸을 비틀었다. 그 바람에 이불이 흘러내렸다.

나는 얼른 이불을 덮어드렸다.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신고 있는 양말과 혁수 오빠의 양말이 같은 무늬라는 걸 발견하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할아버지는 꿈속에서 어린 시절 마당에서 가족들과 지내는 듯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자고 있었다. 혁수 오빠도 같은 마당에서 어린 동생을 만나려는 듯 눈을 감고 잠을 청하고 있었다. 열어 놓은 창문으로 살랑살랑 초여름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글 강지형 그림 김정혜



하늘에 노을이 붉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반도 중간의 넓은 초원도 온통 붉은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초원 한구석에 따스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에서 고라니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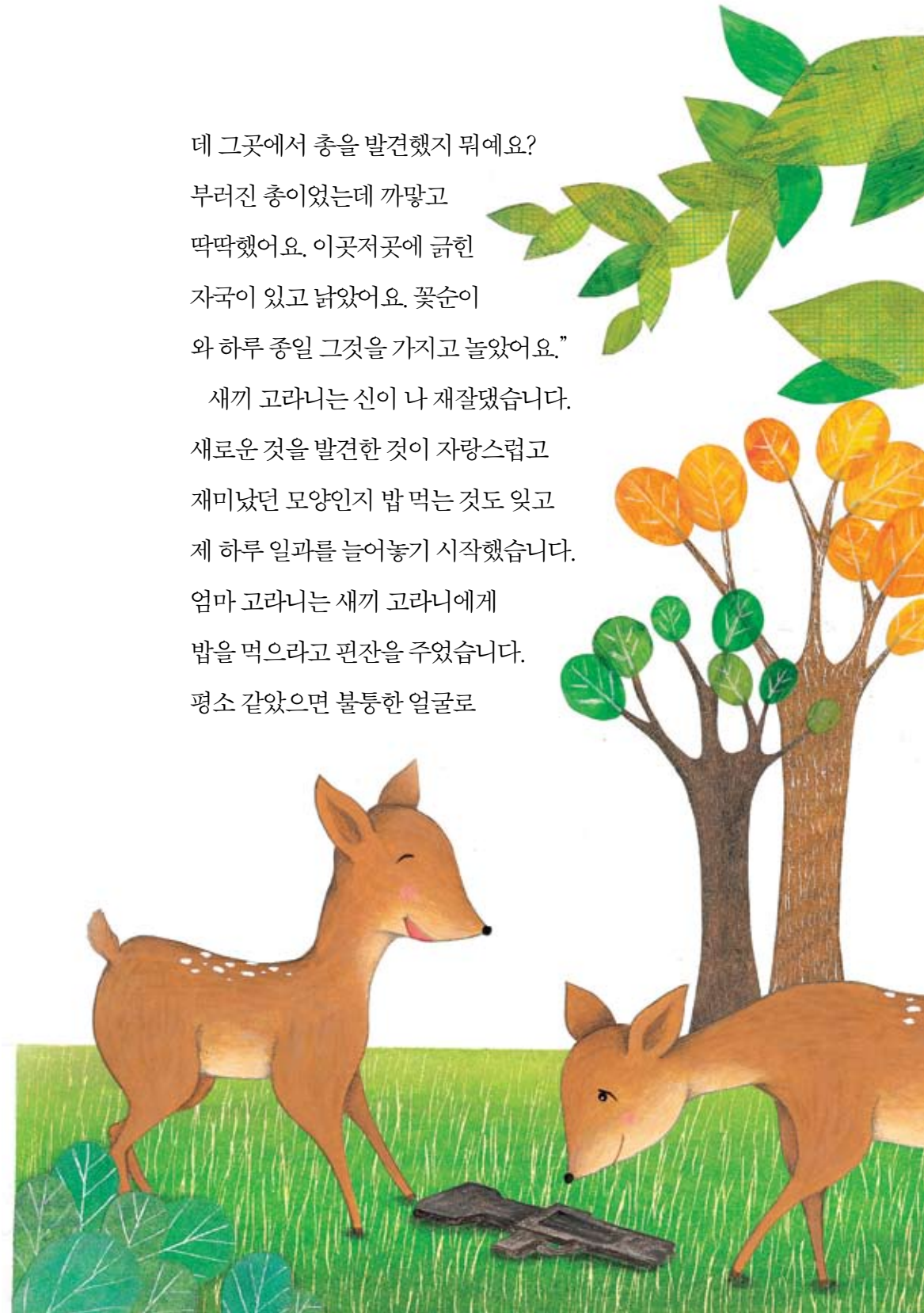
새끼 고라니는 신이 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저녁식사를 하는 도중에도 히히 개구쟁이 같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애, 뭐 그리 신이 났니?”

엄마 고라니가 물었습니다. 새끼 고라니는 조금 전부터 생각하던, 오늘 초원에서 일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옆집 꽃순이와 초원 남쪽 멀리까지 다녀왔어요. 그런

데 그곳에서 충을 발견했지 뭐예요?  
부러진 충이었는데 까맣고  
딱딱했어요. 이곳저곳에 굵힌  
자국이 있고 납았어요. 꽃순이  
와 하루 종일 그것을 가지고 놀았어요.”  
새끼 고라니는 신이 나 재잘댔습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이 자랑스럽고  
재미났던 모양인지 밥 먹는 것도 잊고  
제 하루 일과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고라니는 새끼 고라니에게  
밥을 먹으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불통한 얼굴로



손가락을 들었을 새끼 고라니는 기분이 좋아 싱글벙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쪽 발목이 부러져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모시고 거실로 온 새끼 고라니는 할머니 옆에 앉아 과일을 집어 먹었습니다. 인자한 웃음을 띤 할머니는 새끼 고라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이 할미가 이야기 하나 해줄까?”

“무슨 이야기인데요?”

새끼 고라니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끼 고라니에게 곧잘 옛날이야기를 해주시곤 했는데, 그 이야기들은 무척 재미있었고 새끼 고라니는 다정한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건 할머니 어릴 적 이야기야.”

할머니는 그렇게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옛날 할머니가** 어릴 적엔 한반도가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끼 고라니처럼 호기심이 많고 모험심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마음껏 뛰어다닐 수 없었습니다. 지

금은 한반도 한가운데에 살지만 그때 당시에 할머니는 조금 북쪽에 살았고, 북쪽 사람들은 고라니를 보면 사냥을 해 잡아먹었습니다. 게다가 나뉜 한반도는 오래 전부터 전쟁을 했고, 그때는 휴전 중이었으나 땅속에 묻어 둔 지뢰는 여전했습니다. 할머니는 초원을 돌아다니고 싶었지만 늘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위험을 무릅쓰고 항상 가던 곳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휴전선이었습니다. 휴전선은 한반도 북쪽과 남쪽이 전쟁을 쉬면서 휴전의 의미로 만든 철책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곳의 풀덤불 뒤에 숨어 늘 한 솟고라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또래의 그 솟고라니는 다른 고라니들에 비해 유달리 송곳니가 커 남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솟고라니를 볼 때면 가슴이 쿵닥거리고 볼이 발그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그 솟고라니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휴전선을 넘기로 말입니다. 휴전선을 넘기 전날 밤 할머니는 심장이 떨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고, 할머니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해가 막 수평선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풀덤불에 매달린 열매를 따먹으며 표시해 둔 길을 따라 걸어 휴전선 앞에 도착했습니다. 올려다본 철책은 평소보다 더 높아 보였고, 끝에 설치된

쇠로 만든 가시덩굴은 더 무시무시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긴장이 되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렇게 하면 긴장감이 몸에서 떨어져 나갈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조심 땅을 발끝으로 더듬어 철책으로부터 조금 물러난 뒤,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꽤 안 가득 공기를 채우고 입을 합다 문 채 할머니는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발을 움직이는 와중에도 지뢰가 터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그것도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발이 땅을 박차고,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가시덩굴에 몸이 찢길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괜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시덩굴보다 더 높이 뛰어 철책을 넘었고, 곧 땅 위에 발을 딛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긴장으로 굳어 있던 몸에서 힘이 풀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땅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철책 너머 북쪽과 비슷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기다랗게 자란 잡초, 이곳저곳 피어난 들꽃, 눈을 감고 숨을 한껏 들이마시면 코끝에 스미는 흙냄새, 얼굴

을 스치고 지나는 다정한 바람……. 안심이 된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스락. 풀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 할머니 또래의 숫고라니 한 마리가 서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멍해졌습니다. 유난히 큰 송곳니. 그 숫고라니는 매일 할머니가 풀잎 너머로 훑쳐보던 주인공이었습니다.

“애, 혹시 너 저 철책을 넘어온 거니?”

상냥한 목소리. 할머니는 지금 이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늘 너머만 보던 철책을 뛰어넘고, 몰래 지켜보던 숫고라니가 자신에게 말을 걸다니! 할머니는 황홀한 느낌에 취해 숫고라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하지 않자 당황한 숫고라니가 “어디 아프니?”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나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 말을 증명하듯 할머니는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숫고라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싱긋 웃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그 모습이 반짝반짝 빛나 보였습니다.

“너 정말로 철책을 뛰어 넘어온 거니?”

숫고라니가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곁으로 한 발짝 다가온 숫고라니는 멀리서 볼 때보다 훨씬 잘생겼습니다. 할머니는 숫고



라니가 옆에 있다는 사실이 기뻐 평소보다 더 흥분한 모습으로 말을 했습니다. 신이 나서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는 할머니의 말을 웃으며 듣던 솫고라니는 대단하다며 연신 칭찬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터질 것같이 기뻐했습니다.

“북쪽 사람들은 고라니를 보면 총으로 쏘 죽인다며? 나는 무서워서 녀를 엄두도 못 냈는데. 이곳 군인들은 친절해서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항상 나를 반겨 줘.”

할머니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반겨 주다니, 북쪽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북쪽에서 고라니는 식량으로 여겨져 보이는 족족 잡아먹었습니다. 북쪽의 고라니들은



사람들이 무서워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잘 나가지 않았습  
니다. 자신이 먹을 것도 모자라 마구잡이로 자연의 것을 취하  
는 사람이 동물에게 음식을 나눠 주다니. 할머니는 남쪽은 풍  
요로운 곳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숫고라니는 놀라는 할머니를 이끌고 군부대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이 익숙한 듯 숫고라니는 지뢰가 있는 곳을 피해 앞으  
로 쭉쭉 나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땅을 디디며 숫고  
라니를 쫓아 걸었습니다.

도착한 군부대에는 초록색 군복을 입고, 손에 총을 들고, 딱  
딱한 표정을 한 군인 한 명이 서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겨울  
시린 바람이라도 맞은 듯 뽁뽁 언 표정이 무서워 숫고라니를  
붙잡았습니다.

“저 사람 표정이 무서워. 그냥 숲에서 먹을 것을 찾자.”

할머니를 내려다본 숫고라니가 할머니의 눈 속에서 걱정을  
읽은 것인지 따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걱정만큼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한번 가보자.”

숫고라니가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나무 사이로 가려져 있  
던 숫고라니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군인이 환  
한 미소를 지으며 숫고라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녀석, 또 왔네. 내가 그렇게 좋으냐?”

군인이 부드러운 손길로 숫고라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  
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안에서 건빵을 꺼내 숫고라니  
의 입에 가져다줬습니다. 건빵을 받아먹은 숫고라니가 뒤를 돌  
아보면서 눈짓으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쭈뼛대며  
그곳으로 걸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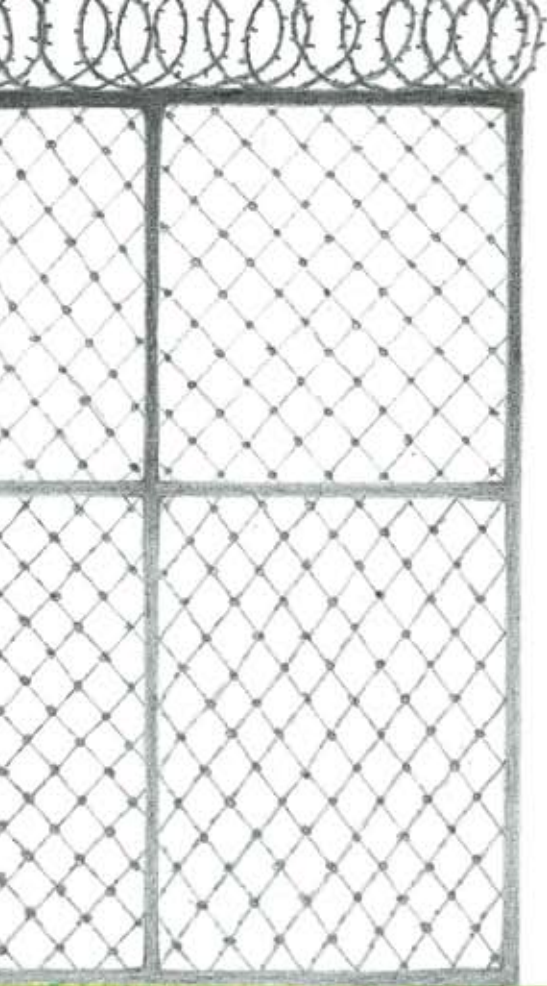
“여자 친구야? 예쁘네.”

군인은 역시 다정하게 할머니의 머리를 쓰다듬고 주머니 속  
건빵을 꺼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 보는, 네모나고 딱딱  
해 보이는 것에 놀라 흠칫 뒤로 물러났습니다. 옆에서 숫고라  
니가 “괜찮아, 맛있어. 한번 먹어 봐” 하며 할머니를 달랬습니  
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군인의 손 위에 놓인 건빵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군인 손의 따스한 온기가 입에 닿고, 입안  
으로 밀 향기가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건빵을 받아먹으며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에 휩싸  
였습니다. 고라니들끼리 서로 몸을 부비며 애정을 표현하는 것  
과는 다른, 손끝에 따스함이 깃든 사람의 손길이 좋았습니다.  
생전 처음 받아 보는 사람의 환대에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뜨  
거운 감정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할머니는 군인의 손에 얼굴  
을 비볐습니다.

그 뒤로 할머니는 매일 철책을 넘어 숫고라니를 만났고, 군





부대에 갔습니다. 처음 봤던  
그날같이 숫고라니는 늘 다  
정하고 상냥했습니다. 할머니  
와 마찬가지로 가족들과 함께  
사는 숫고라니는 사방에 깔린  
지뢰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  
고, 같은 나이 또래의 고라니  
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때문인  
지 숫고라니와 할머니는 급속  
도로 친해졌습니다. 매일 지  
뢰를 피해 조금씩 초원을 돌

아다니는 것도 숫고라니와 함께여서 더 즐거웠습니다. 열매를  
따먹고, 풀냄새를 맡고, 바람을 느끼는 매일 매일이 신나고 행  
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루의 어느 때가 되면 숫고라  
니와 할머니는 군부대로 향했습니다.

남쪽 땅을 두 번째로 밟은 날, 할머니는 군부대에 첫날 본 군  
인과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습니다. 숫고라니  
의 말에 의하면, 처음 만났던 군인 말고도 군부대에는 더 많은  
군인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철책을 넘고 나서부터 많은 군인들을 만났는데, 그  
들은 모두 친절했습니다. 군인들은 항상 건빵을 주진 않았지만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사람의 손길이 좋았  
고 군인들은 할머니를 예뻐해 주었습니다.





할머니와 숫고라니는 오늘도 군부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군인들은 먹을 것을 나눠 주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으며, 가끔 노래를 불러 주었습니다. 할머니와 숫고라니는 군부대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초원으로 향했습니다.

“있잖아, 오늘은 초원 멀리까지 가볼래?”

숫고라니가 말했습니다. 숫고라니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거렸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해가 지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원은 한없이 푸르렀습니다.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같은 초원이지만, 할머니는 성취감에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숫고라니도 마찬가지인지 그의 얼굴에 즐거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석양이 비친 얼굴을 넋 놓고 바라보던 할머니는 문득 깜짝 놀랐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초원 멀리까지 나온지라 이곳부터 뛰어간다 해도 철책에 도착하면 해가 다 지고 말 것입니다.

할머니는 다급한 마음에 서둘러 뛰었습니다. 뒤에서 숫고라니가 할머니를 쫓아왔습니다. 숫고라니는 정신없이 뛰는 할머니가 걱정이 되었는지 조심해서 뛰라고 말했습니다.

“지뢰를 밟으면 큰일 나! 화약 냄새를 잘 맡으며 뛰어!”

숫고라니의 집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알겠어. 고라니야, 내일 봐!”

할머니는 숫고라니를 뒤로한 채 열심히 뛰었습니다. 철책 아래 도착하니 예상대로 해가 저 멀리 땅 아래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심호흡을 하고 도움닫기를 했습니다. 철책을 넘어 땅을 디뎠습니다. 집으로 막 뛰어가던 찰나, 평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가 울리고 몸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바닥 위로 쓰러졌습니다. 내려다본 발목이 부러져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발목지뢰를 밟은 것입니다. 할머니는 생전 처음 겪어 보는 고통에 울부짖었습니다.

어느새 해가 자취를 감춰 주위가 캄캄했습니다. 목이 아파왔지만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빠진 것처럼 너무 아팠고, 이렇게 소리라도 내지 않으면 누구도 자신을 발견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부짖던 중 저 멀리 불빛이 보이는 순간, 할머니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네가 발견한 그 총은 아마 남쪽 군인의 것일 거야.”

★  
중고등부  
우수상  
★

## 너도 왼발잡이였어?



글 김채린 그림 이수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새끼 고라니는 부러진 총을 발견했다며 좋아했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께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남과 북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동이 자유롭지 못했단다. 통일을 함으로써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자유가 주어진 것이지. 이렇듯 나라가 분단되는 것은 비단 인간의 문제만은 아니란다.”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새끼 고라니의 머리 위를 살포시 덮었습니다. 새끼 고라니는 할머니의 다리를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던 할머니의 다리가 아픈 이유를 알게 되니, 지금 자신의 행복 뒤에는 할머니의 희생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걱정스럽게 보지는 마렴. 비록 다리를 다쳐 휴전선을 뛰어넘을 수는 없었지만 그 숫고라니가 철책을 넘어 나에게로 왔단다. 그게 너희 할아버지고.”

할머니가 눈을 찡긋, 윙크를 해보였습니다. 새끼 고라니가 활짝 웃었습니다.



**학교를 마친** 준식이에겐 오후 일정이 없었다. 그렇다고 바로 집으로 가는 것도 내키지 않았다. 지금쯤 아버지는 어깨에 파스를 잔뜩 붙이고 주무시고 있을 것이다. 남으로 와서 준식이 아버지가 찾은 일은 도배였다. 그것마저 장마철이 되면서 일거리가 없어지자 요즘은 밤마다 화물터미널에서 일했다.

‘그래도 고향에서 아버지는 선생님이었는데…….’

무거운 발걸음으로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다.

“야, 장사할 음식을 그렇게 먹어 치우면 뭘로 장사해! 그만 좀 먹으라고.”

분식 가게에서 나는 소리였다. 호통 소리가 하도 커서 가게 안을 바라보다 도망치듯 나오는 민창이와 눈이 딱 마주쳤다. 준식이를 보자 멧쩍었는지 민창이는 머리를 벽벽 긁으며 혼잣말처럼 투덜거렸다.

“떡볶이 좀 집어먹었다고 저 난리냐! 하여튼 레알, 진짜 엄마 인가 의심이 든다니까.”

씩씩대는 민창을 멀거니 바라보다 발길을 돌리려는데 뒤에서 민창이가 불렀다.

“야, 할 일 없음 나랑 노는 거 어때?”

갑작스런 제안에 준식이는 이리저리 주변을 살폈다. 옆에 다른 누가 있나 싶어서였다.

“백두산족, 너 말이야. 지금 놀 수 있냐고.”

준식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남한으로 오고부터 준식이는 말 대신 고개로 답하는 버릇이 생겼다. 억센 북한 사투리를 듣고 놀라는 사람들 반응이 싫어서였다.

“그럼 나 따라와. 저 쪽 공영주차장 옆에 보면 공터가 있는데 거기가 볼 차기엔 딱이야.”

똥똥한 몸으로 공을 놀리며 걷는 민창이의 폼이 어설피 준식이는 피식 웃었다.

“어, 너 웃을 줄도 알아? 자식! 넌 웃는 장치가 고장 난 족속

인가 했다.”

드디어 준식에게 말 걸어 주는 친구가 생긴 것이다. 학교에 다닌 지 꼭 한 달만의 일이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하늘은 아직 인상만 찌푸리고 있었다.

‘기왕이면 축구 좀 한 다음에 비를 뿌리지요. 내게 말 건 친구와 축구 한판 붙어 보자우.’

준식은 설레었다. 게다가 축구라면 남에게 뒤지지 않을 자신도 있었다. 준식의 발걸음이 배추밭을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가볍게 나풀거렸다.

축구를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아버지는 피곤이 잔뜩 낀 얼굴로 저녁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다.

“오늘은 마이 늦어 걱정 했음메. 뭘 일 있었등 거 아임메?”

“아닙네다. 고저 축구를 하다 왔습다.”

“고거이 잘됐구마이. 같이 놀 아가 생긴 것임메?”

아버지 표정이 금세 밝아졌다. 아버지도 준식이가 친구 없이 힘들어 하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밥을 먹는 동안 방안에선 파스 냄새가 진동했다. 준식은 밥맛과 파스 냄새가 섞여 무슨 맛인지 모를 지경이었다.

## 다음날 선생님께선

총례시간에 성적표를 나눠 준다고 하셨다. 준식은 북에서는 공부 잘하는 아이로 통해 역시 선생님 아들은 다르다는 얘기를 듣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 얘기가 아득한 옛 이야기로 들릴 만큼 성적에 자신이 없었다.

“젠 시험 잘 봤을까? 북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궁금하다. 평균이 얼마나 될까? 남과 북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한데!”

아이들 수군대는 소리가 또렷이 들려 준식은 괴로웠다. 그냥 성적이면 성적이지 거기서 왜 또 남과 북의 차이를 들먹이는 건지 자존심이 상했다. 그때 누군가 어깨를 툭 쳤다.

“와! 너 어제 골 차는 거 보니까 예사롭지 않더라. 진짜 대박! 북에서 골만 차다 왔냐?”

민창이가 싱글거리며 웃고 서있었다. 어제까지와 달리 그래도 말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생겼다는 것이 실감 나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아이들 시선이 민창이에게로 쏠렸다. 재네가 언제 말을 텃지? 하는 표정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아이들 몇 명이 민창이를 놀렸다.

“재네 좀 봐! 민창이도 얼마 안 있으면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겠다.”

민창이는 아이들이 놀리는 것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다.

‘나도 아이들 얘기를 저렇게 흘려 넘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준식이는 고향 친구들이 보고 싶었다. 특히 누런 이를 드러내며 웃는 명철이가 못 견디게 보고 싶었다.

“오늘밤 남으로 갈 거니까니 기린 줄 알고 있으라우. 절대 누구한테 말하지 말라우!”

인민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뜩 굳은 표정으로 준식에게 말했다.

“어이 그럴 수가 있습메? 누구누구 가는 겁메까?”

“알 것 없다. 나중에 다 알게 될 일이니까니.”

밤이 깊어질 때까지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해댔다. 지난 몇 달 동안 아버지는 제 정신이 아니었다. 아기를 낳다가 죽은 아내, 세상 구경 못하고 뱃속에서 죽어 나온 핏덩이를 보면서 아버지는 어쩌면 북한은 살 곳이 못 된다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준식이도 그곳이 싫었다. 엄마가 없는 송정리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아버지는 준식이에게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한 뒤

어디로 간 건지 소식이 없었다. 준식이는 방에 들어가 엄마 사진을 챙겼다.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배가 아프다고 집을 나가던 몇 달 전처럼 걸어서 대문을 들어선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방이 캄캄해졌을 때 나타난 아버지는 준식이의 손을 잡아 끌었다. 불빛이 없는 마을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 같지 않았다. 전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사람들은 저녁만 먹으면 잠자리에 드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마을을 벗어나고서야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무서워할 거 없습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임메? 여기 살아선 희망이 없으니까니, 기리니까니 겁먹지 말라우. 지금 살라고 가는 거니까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아버지, 내래 절대 떨지 않습다. 근데 남한에 가든 쌀밥은 먹을 수 있겠지요? 쌀밥 한번 원 없이 먹고 싶습네다.”

준식이가 일부러 농을 섞어 가볍게 말했다.

어디서 킁킁 개 짖는 소리가 어둠을 흔들었다. 두어 차례 힘 없이 짖던 소리는 금세 사라졌다. 준식이는 ‘저 녀석도 저녁을 못 먹어 배가 고프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부둣가로 갔을 때 먼저 온 일행이 있었다.  
“이쪽입네다. 어서 오시라요. 곧 썰물이니끼니  
서둘러야겠지요.”  
“배는 확인했습니까?”  
“그러므로. 잘 매두었습메다. 어서 가자우요.  
서로 떨어지지 말고 붙어서 움직이라우.”  
처음에는 몰랐는데 가만 들어보니 낮은  
은 목소리인 듯했다. 그러나 누군지  
물을 만큼 준식은 한가하지  
못했다. 앞선 사람을 쫓아 일  
행에서 낙오되지 않게 따라가

야만 했기 때문이다. 배에 올라 한동안 모두 아무 말이 없었다.  
다들 썩썩거리는 숨소리만 냈다. 철썩철썩……. 노를 저을 때  
마다 바다에서 나는 소리는 섬뜩하리만큼 무서웠다.

“한참 온 것 같디요? 감시를 피하느라 그믐을 택하긴 했는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요.”



힘이 드는지 숨을 몰아쉬는 아버지 목소리였다.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달리 방도가 없으니끼니…….”

‘아니, 저 목소리는 명철이 아버지 목소리 같은데…….’

정신을 차리고 나자 낮은 목소리의 주인공이 명철이 아버지 같단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이 배에 명철이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거기 혹시 명철이 있간? 아임메?”

“그럼 너는 준식임메?”

맞았다. 명철이가 한 배에 타고 있었던 것이다. 손을 뻗어 들은 서로 손을 잡았다. 반가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너무 하심메. 어찌 아버지는 명철이랑 같이 간다는 말씀을 안 하셨음메?”

“맞습다. 어찌 아버지도 준식이랑 간다고 한 말씀을 안 하신 검메?”

준식이와 명철이는 원망 반 반가움 반 섞인 말투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였다. 명철이와 만났다는 기쁨도 잠시, 바다가 요동을 쳤다. 아무 장치도 없는 조그만 고깃배는 바다가 몸을 뒤척일 때마다 이리저리 심하게 기우뚱거렸다.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습네다. 명철 아버지 어찌 생각하심메까?”

당황한 준식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한껏 높아졌다. 명철 아버지는 고기 잡는 어부였으므로 바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바람 부는 방향하고 파도치는 걸 보면 태풍이 몰아닥칠 것 같습네다.”

어른들의 심각한 얘기를 들으며 준식이와 명철이는 두 손을 꼭 잡았다.

“꼭 잡으라우! 손 놓으면 죽습메. 어카든 꼭 잡고 있음 살갓디!”

명철 아버지의 외마디 소리가 들렸다. 준식이는 힘껏 고깃배를 꼭 잡았다.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손을 놓을 뻔했다. 섬뜩했다. 손을 놓으면 바로 시커먼 바다로 빠질 상황이었다.

“아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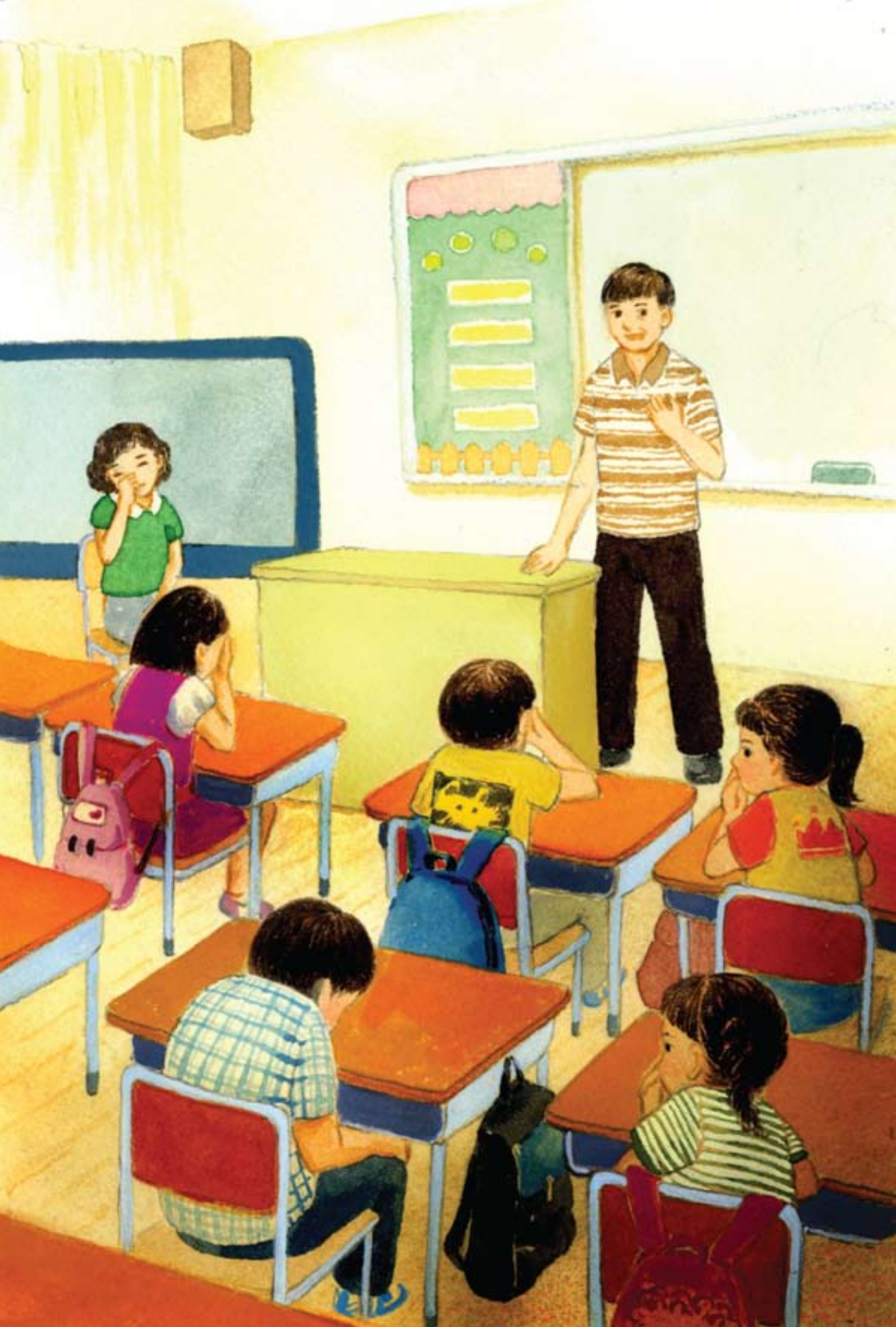
어둠을 찢는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다.

“이 무슨 소리네? 다들 잘 있갓디? 모두 자기 이름을 말해 보지요. 어서!”

바로 그 순간 울부짖는 명철 엄마 소리가 들렸다.

“명철 아버지, 명철이가 안 보입네다. 조금 전까지 내 앞에 앉아 있었는데 없다 말입네다!”





준식은 명철이가 있던 자리를 더듬었다. 자리가 땀했다. 조 그만 목선 어디에도 명철이는 없었다.

**민창이와 친구가 되자** 준식은 이상하게도 명철이 생각이 더 간절했다. 그때 선생님이 시험지를 들고 교실로 들어섰다.

“이제부터 시험지를 나눠 줄 거다. 좋은 점수가 나온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기대에 못 미치는 점수가 나온 친구들도 있을 것이다. 모두 시험 준비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잘 살펴 다음에는 보다 나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하자! 자, 김민지, 여상민…… 황준식…….”

준식이 교탁 앞으로 가서 시험지를 받아 들고 자리로 가려는 데 장난기 많은 조규석이 다가와 시험지를 낚아챘다. 빠르게 점수를 훑은 녀석의 눈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종례를 마친 선생님께서 교실을 나가자 조규석 주변으로 아이들이 몰려들었다.

“재 몇 점이야? 몇 개나 틀렸어? 뭐, 전쟁 준비하느라 공부나 했겠어?”

아이들은 조규석의 입을 보며 안달을 해댔다. 그런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부아가 치밀었다.

“그래, 내 시험 못 봤음메. 이제 어쩔킨데? 어떤 놈이든 한번 붙어 보라우. 박살을 내줄끼니까니!”

별게진 눈으로 씩씩대며 아이들을 노려보자 모두들 주춤하는 눈치였다. 준식이는 그렇게 한참을 도사리고 서서 버티다 교실을 빠져나왔다.

**다음날 아침** 준식이는 학교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렸다.

‘학교는 가서 뭐함메?’

그러나 막상 갈 곳이 없었다. 지치도록 돌아다니다 학교가 끝날 즈음이 돼서야 집으로 들어섰다. 아버지께서는 여느 때 처럼 저녁 먹을 채비를 하고 계셨다. 잠시 후 아버지가 일을 나가자 준식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불을 뒤집어쓰고 소리 내 울었다.

다음날 아버지는 좀 이른 시간에 집에 오셨다. 밤새 일했을 아버지를 보며 준식이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이까짓 일로 포기하면 아버지가 속상해 하실 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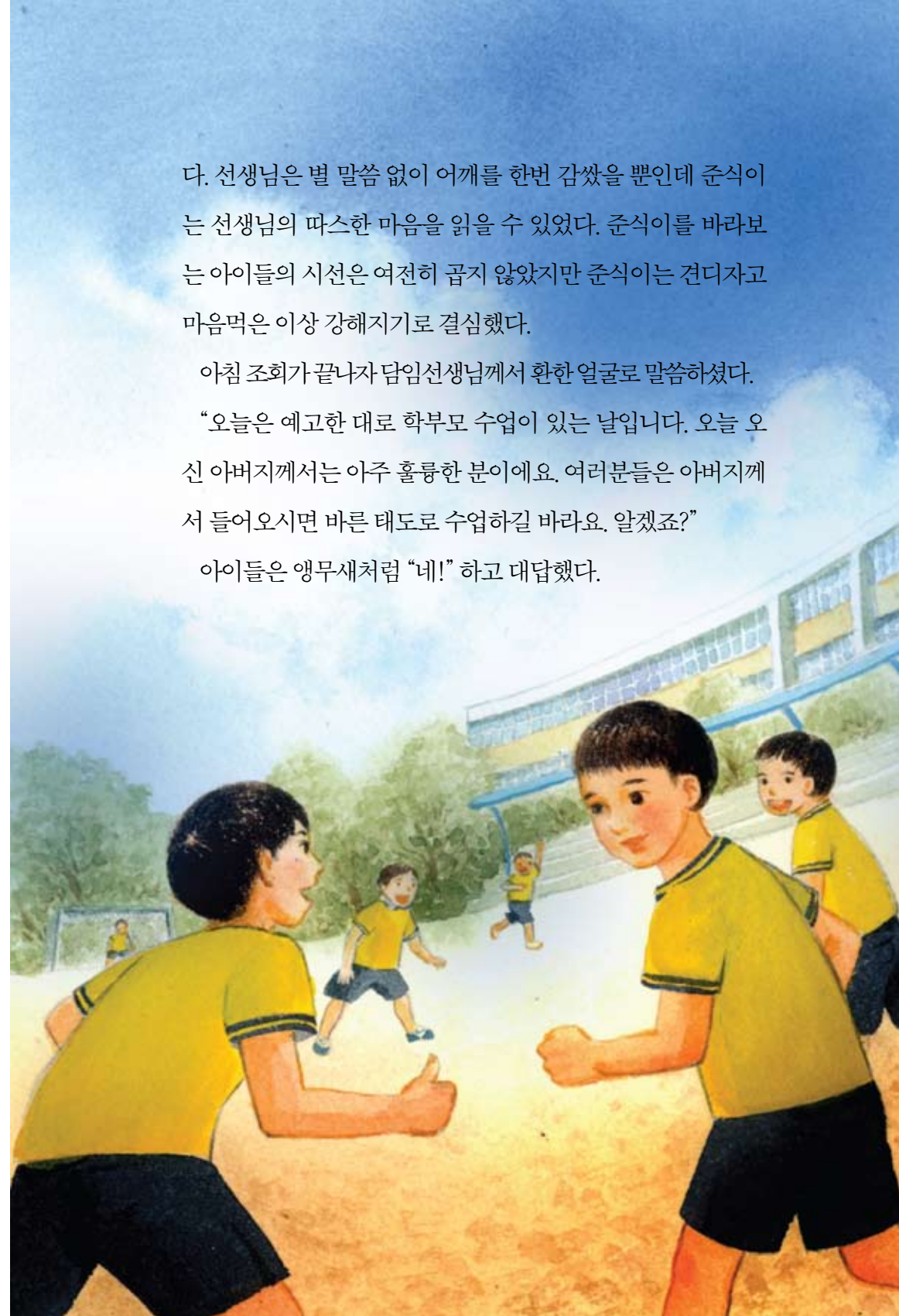
교실로 들어서자 일찍 와 계시던 선생님이 준식이를 불러냈

다. 선생님은 별 말씀 없이 어깨를 한번 감쌌을 뿐인데 준식이는 선생님의 따스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준식이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지만 준식이는 건디자고 마음먹은 이상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아침 조회가 끝나자 담임선생님께서 환한 얼굴로 말씀하셨다.

“오늘은 예고한 대로 학부모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께서는 아주 훌륭한 분이예요. 여러분들은 아버지께서 들어오시면 바른 태도로 수업하길 바라요. 알겠죠?”

아이들은 앵무새처럼 “네!” 하고 대답했다.



선생님 말씀이 끝나고 교실로 들어서는 일일교사를 본 순간 준식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교실로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준식의 아버지였던 것이다.

“반갑습니다! 내래 우리 준식이 어떤 동무들과 공부하는지 많이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 영광입니다.”

준식이 아버지의 인사에 아이들이 한바탕 자지러지게 웃었다. 여기저기서 “우리보고 동무래” 하는 소리가 들렸다. 준식은 고개를 숙이고 어쩔 줄 몰랐다. 아버지가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는 게 정말 싫었다. 그러나 안절부절못하는 준식과 달리 아버지는 차분하고 잔잔한 말투로 북한을 탈출하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했던 일, 그래서 자유가 보장된다는 이 나라를 마음에 품게 된 일을 얘기했다. 결정적으로 탈북을 생각하게 된 것이 임신부였던 준식의 엄마와 뱃속의 아이를 잃은 일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아이들이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여러분! 난 내 아들만큼은 자유로운 세상에서 꿈을 펼치며 살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남한으로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버지는 얘기를 마치고 준식을 한번 바라보더니 선생님과 함께 교실을 나가셨다. 준식이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쑥스러워하며 사과하는 친구도 있었고, 울어서 눈동자가 빨간 아이도 여럿 있었다. 준식은 이 상황이 당황스러워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 한번 해본 적 없는 반장 준호가 다가오더니 말을 건넸다.

“점심시간에 4반과 축구 한판 붙기로 했는데 준식이 너 같이 할래? 민창이가 그러던데 너 축구 잘한다며?”

건너편에서 민창이가 씨익 웃는 것이 보였다.

“그래, 같이 하자. 우리가 4반한테 좀 밀리거든. 미드필더가 약해 득점으로 연결이 안 되는데 준식이 그 자리 맡으면 되겠네.”

아이들은 준식과 오래된 친구처럼 다가왔다. 준식이 아이들 손에 이끌려 운동장으로 나왔을 때 4반 아이들이 몸을 풀고 있었다.

“시간 없다. 어서 시작하자!”

누군가 시작을 알리는 호각을 불자 아이들은 서둘러 경기를 시작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학교에 왔다는 사실을 생각하자 준식의 발길질에 힘이 났다. 송정리 모래밭을 뿔 때처럼 몸이 가벼웠다. 그 바람에 자신을 가로막는 수비수들의 틈

# 이건 기적이 아니야



글 염에서 그림 강하라

을 가볍게 휘젓고 다닐 수 있었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그래, 오늘 내가 송정리 대표선수 본때를 보여 줄꺼니까니 제대로 한번 놀라 보지요.’

준식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다. 그때 준호가 옆으로 다가와 헉헉거리며 말했다.

“어? 준식이 너도 왼발잡이었어? 나도 왼발잡인데. 근데 너 진짜 바람돌이처럼 날쌐다. 4반 녀석들 긴장해서 얼굴이 완전 얼었어! 너만 믿는다.”

준식은 왠지 준호하고 말이 잘 통할 것 같았다. 여름인데도 바람 끝이 시원했다. 이제 곧 가을이 올 징조였다.



“남북정상 간 종전 협정 체결! 종전 협정 심층 취재! 앞으로…….”

송이는 TV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에이 뭐야, 열흘이 지나도록 계속 이 소식만 나오네.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송이는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 자신이 원하는 방송을 볼 수 없어 그냥 껐습니다.

“송이야, 뭐해? 아빠 보고 있어.”

소파에서 졸던 아빠가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만날 자면서 보고 있대.”

송이는 다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이번엔 아빠가 리모컨을

돌렸습니다. 어린이 방송이었습니다.

“이번에 종전 협정 체결 기념으로 비무장지대에 평화 숲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다음달 2일에 기념식수가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의미 있는 것은 기념식수에 미래의 주역인 남북한 어린이를 초대한다고 합니다.”

텔레비전 속에서 아나운서가 밝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어린이 방송도 이 소식이야?”

송이가 투덜거리다 아빠에게서 리모컨을 빼앗았습니다.

“남북한 각 25명을 선발해서 기념식수식을 가진다고 합니다. 역사적 순간을 함께할 어린이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리며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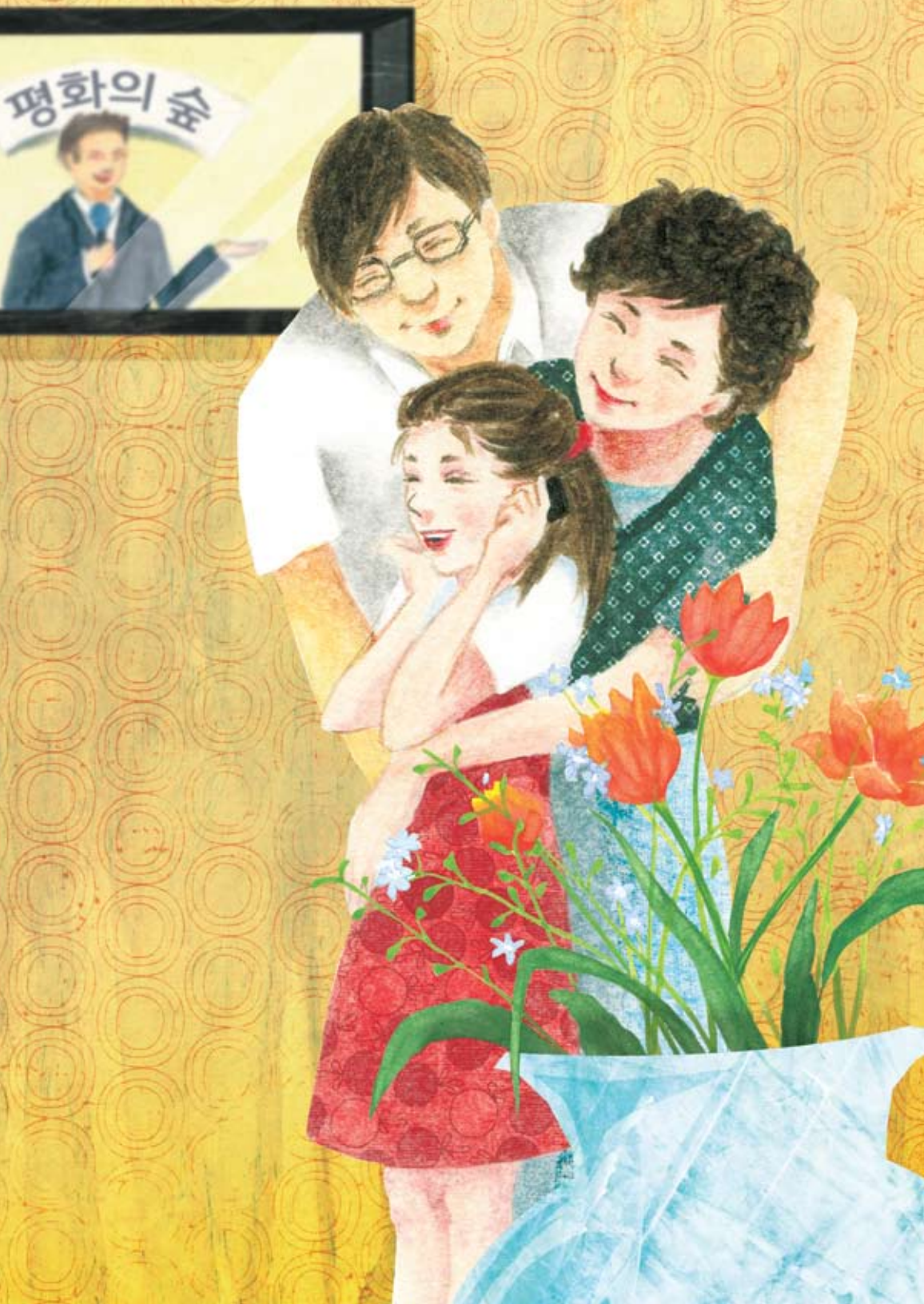
“송이야, 잠깐만! 너도 저것 한번 신청해 봐라.”

아빠가 급하게 리모컨을 빼앗았습니다.

“에이, 아빠는! 애들하고 제비뽑기를 해도 잘 안 되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뽑히겠어?”

송이가 다시 리모컨을 뺏어 다른 곳을 틀었습니다.

“한송이, 도전하면 1퍼센트의 확률이라도 있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확률은 아예 0퍼센트야. 세상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우리 딸이 역사적인 순간에 TV에 짤 하고 나오면 아빠는 엄청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뭐 아빠가 대신 신청해 주든가.”

송이는 아빠 말에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웬일로 재빨리 컴퓨터 앞에 앉더니 선착순도 아닌데 빠르게 신청을 마무리했습니다.

“와우, 한송이 너 참가 신청 번호가 1846번이다.”

컴퓨터를 보던 아빠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헉! 벌써 1846번이라고? 방금 방송 보고 신청한 건데 너무 많이 참가하는걸. 에이, 안 되겠네.”

송이가 실망한 듯이 말했습니다.

“좌우간 다음달 2일에 생방송하면서 당첨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준대.”

송이는 신청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는 예전과 똑같이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갔습니다. 종전이다 뭐다 하지만 송이의 생활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날도 송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학원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송이가 될까?”

“그야 모를 일이지. 좌우간 방송을 좀 보자고.”

거실에서 엄마와 아빠가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분은 마치 대학 합격자 명단을 기다리는 부모님들처럼 초조해했습니다.

“아빠, 엄마, 도대체 뭘 그렇게 기다려?”

송이의 물음에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헛!’ 했습니다.

방송에서는 한 명 한 명 당첨자들을 발표했습니다. 곧 마지막 한 명만 남았습니다.

“아이, 아빠!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그때였습니다. 송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방송국 전화번호였습니다.

“이럴 수가!”

떨리는 손으로 송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송이 어린이인가요?”

“네, 제가 한송이입니다.”

“축하합니다. 비무장지대 평화 숲 조성사업 준공식에 초대 받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 꼭 로또 된 것 같아요.”

송이의 목소리가 텔레비전 속에서도 흘러나왔습니다. 송이의 대답에 사람들이

‘하하하’ 하고 웃었습니다.

전화를 어떻게 끊었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송이는 진짜 로또가 된 것처럼 서로 껴안고 방안을 쿵쿵거리며 돌았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도 송이는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보는 선생님마다, 만나는 아이마다 부러운 눈길로 송이를 바라봤습니다. 송이는 마치 연예인이 된 것 같이 우쭐해졌습니다.

**드디어 행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행사장까지 차를 태워 주었습니다. 송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행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전국의 아이들이 다 온 것 같았습니다.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등등 없는 도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행사가 시작되기 전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봐서는 어떤 아이가 북한 아이이고 어떤 아이가 남한 아이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 아이들은 못 먹어서 키도 작고 뺨뺨 말랐다고 하던데 도대체 누가 북한 아이인 거지? 가난해서 옷도 잘 못 입는다고 들었는데…….’



송이는 아이들을 눈으로 한번 쓱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크고 얼굴도 하얀, 옆에 앉은 남자아이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남자아이가 송이를 쳐다봤습니다.

“애, 북한 아이들은 어느 쪽에 앉아 있는 거야?”

송이가 껄속말로 물었습니다.

“뭐하네. 그냥 말하라우. 귀 간지러워 죽겠다야. 내가 북에서 온 아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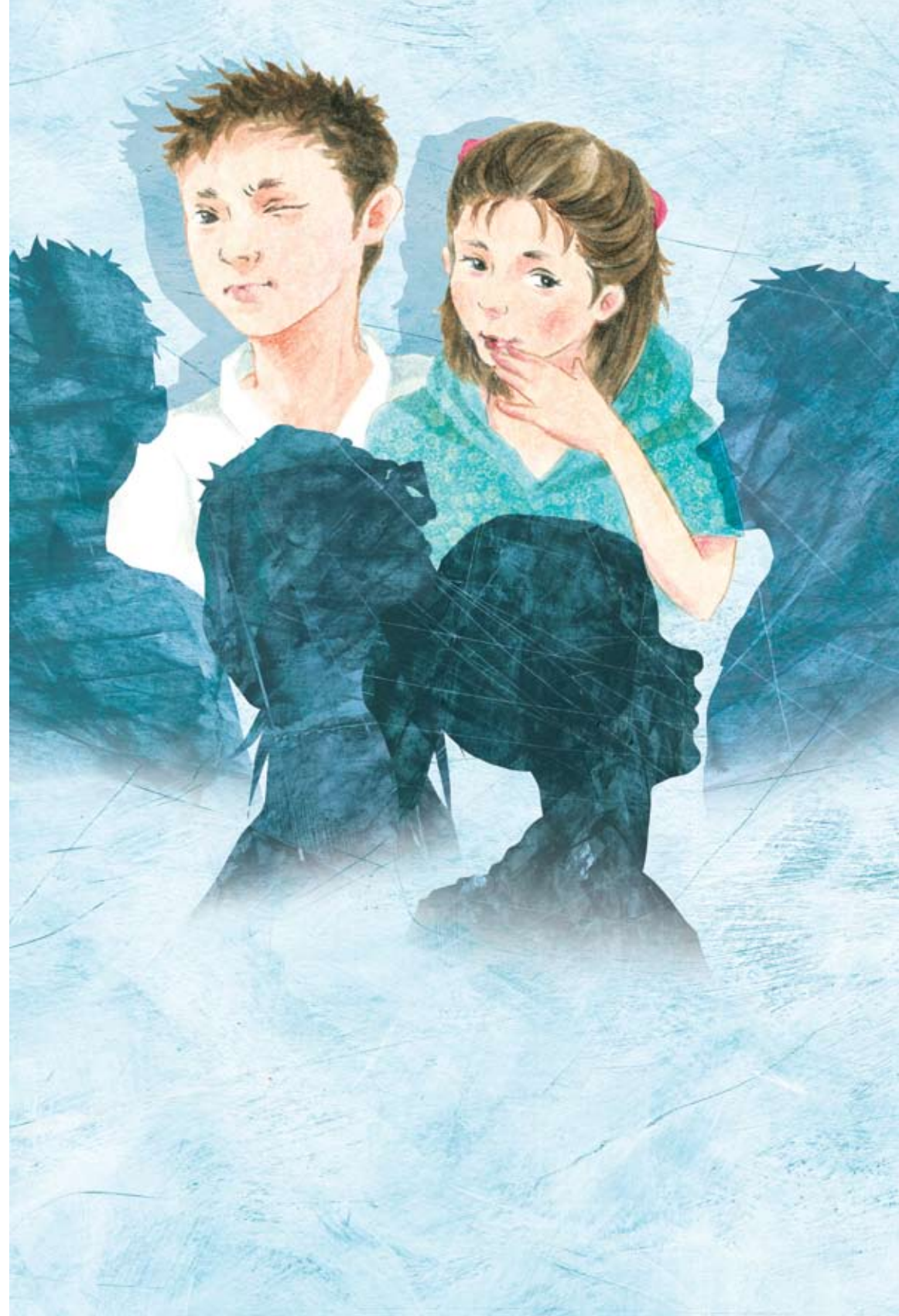
북한 아이가 손으로 귀를 쓱쓱 닦으며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송이는 당황하여 껄불까지 빨갱게 달아올랐습니다. 얼굴을 보고 당연히 남측에서 온 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50명의 아이들이 비무장지대 평화의 숲 입구 양쪽에 소나무와 은행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텔레비전에서는 생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송이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삽을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땅을 좀 더 깊이 파야잖아. 잠깐 나와 보라우,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아까 북한 남자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니 슬며시 다가와 도와주었습니다.

“고마워.”





송이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없어. 그나저나 이름이 뭐네?”

“내 이름은 송이야, 한송이. 넌?”

“난 박대철이야.”

기념식수는 한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아이들과 정부 관료들이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곧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이 모여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가 생각보다 짧게 끝나는 것 같아 시시했습니다.

“여러분, 집중! 식사 후 비무장지대를 잠깐 돌아볼 예정이니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비무장지대는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신비로운 식물과 각종 희귀 동식물들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자연 관찰을 한 후에 이 행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전 그렇고 우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둘러보기 전에 밥부터 많이 드십시오.”

행사를 진행하는 분의 말에 아이들이 ‘와하하’ 하고 웃었습니다.

식사 시간엔 북한 음식과 남한 음식이 반반 나왔습니다. 남쪽 아이들은 북한식 냉면을, 북쪽 아이들은 전주비빔밥을 먹고 싶어했습니다. 송이 역시 냉면을 선택했습니다. 냉면 국물 맛이 담백했습니다.

“크으윽!”

냉면 국물을 마신 송이는 자신도 모르게 트림을 했습니다.

“야, 뭐네. 남한 여자 애들은 모두 다 남자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트림도 하고 그러네?”

대철이가 맞은편에서 두 번째 비빔밥을 들고 오면서 말했습니다.

‘아이, 도대체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송이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대철이는 천연덕스럽게 밥을 잘 먹었습니다.

식사 후 대철이와 송이는 같은 조가 되어 비무장지대 견학을 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사향노루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출입금지 지역인 곳이 있었는데, 그곳엔 무명용사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송이가 아무렇지 않게 그곳을 지나려 할 때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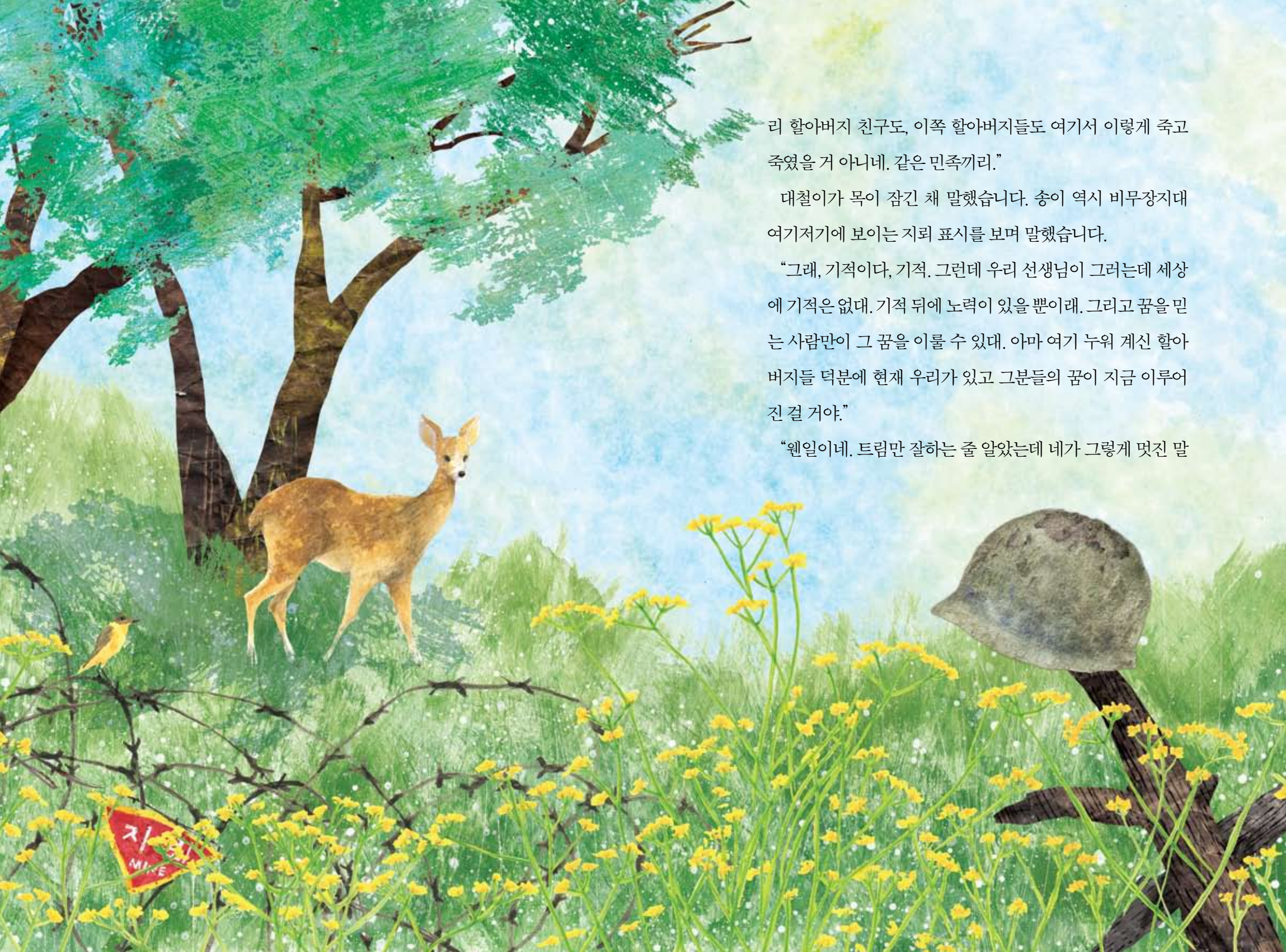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어. 이건 기적이래, 기적.”

대철이가 무명용사의 무덤을 보며 말했습니다.

“뭐가?”

송이가 되물었습니다.

“남북한이 이렇게 사이가 좋아질 줄은 꿈에도 몰랐대. 여기 오니 그게 더 실감난다야. 이곳에서 서로 죽고 죽였을 텐데. 우



리 할아버지 친구도, 이쪽 할아버지들도 여기서 이렇게 죽고 죽었을 거 아니네. 같은 민족끼리.”

대철이가 목이 잠긴 채 말했습니다. 송이 역시 비무장지대 여기저기에 보이는 지뢰 표시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기적이다, 기적.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세상에 기적은 없대. 기적 뒤에 노력이 있을 뿐이래. 그리고 꿈을 믿는 사람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대. 아마 여기 누워 계신 할아버지들 덕분에 현재 우리가 있고 그분들의 꿈이 지금 이루어진 걸 거야.”

“웬일이네. 트림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네가 그렇게 멋진 말

## 할머니의 사진

을 다 하고, 제법이다야.”

“뭐야?”

송이가 살짝 짜려보았습니다.

“네 말이 맞다. 꿈은 믿는 사람에게만 이뤄지는 거니까. 통일을 위해 아무도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통일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이런 날은 안 왔을 기야.”

대철이가 송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를 만날 수도 없었잖지. 저기, 너 손전화 번호 좀 가르쳐 줄 수 없겠네? 이제 우리가 친해질 차례니까.”

대철이가 머리를 긁적이며 부끄럽게 말했습니다.

송이도 활짝 웃어 주었습니다. 비무장지대 하늘 위로 아름다운 새들이 푸드덕 날아갔습니다. 아주 맑고 화창한 하늘이 있었습니다.



글 정영훈 그림 서상희



나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식당을 하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는 항상 밤늦게 집에 들어 오신다. 그래서 나는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많다. 나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좋다.

“옛날하고도 먼 옛날에 말이다…….”

할머니는 재미있는 옛날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이야기는 백만 번 들어도 싫증이 나지 않는다.

“여기저기에서 총알이 비처럼 쏟아졌단다. 나는 그때 아버지의 손을 놓치고 말았지.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단다…….”

할머니는 아주 오래된 전쟁이야기도 실감나게 얘기할 줄 안



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여기저기에서 총알이 날아 올 것 같아 몸이 부르르 떨린다.

보글보글, 보그그그글.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호박죽과 팔죽을 끓이는 비법도 알고 있다. 하얀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겨울밤에 할머니가 끓여 주는 호박죽이나 팔죽을 먹으면서 옛날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된 기분이다.

그런데 할머니한테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딱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틈만 나면 사진을 보면서 훌쩍훌쩍 우는 것이다.

“아버지, 살아 있지요?”

사진 속에는 할머니의 아버지 모습이 담겨 있다. 나한테는 증조할아버지가 되는 분이다. 할머니가 여섯 살 때 헤어졌다고 하니까 지금은 아흔 살이 훨씬 넘으신 분이다. 하지만 사진 속 증조할아버지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젊은 시절의 모습이다.

“아버지, 살아 있으면 만날 날이 있겠지요?”

할머니는 틈만 나면 사진 속 증조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다. 이산가족 상봉이 있을 때마다 할머니는 북한에 계시는 증조할아버지를 찾으려고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도 나가셨다.

따릉, 따릉, 따르릉!

할머니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어르신, 건강하시지요?”

얼마 전 알게 된 새터민 아저씨였다. 새터민 아저씨는 무엇보다도 먼저 할머니의 건강부터 챙겼다. 새터민이란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새로운 터전을 일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새터민이라고 한다는구나.”

내가 새터민 아저씨에 대해 물었을 때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다. 나는 새터민 아저씨를 처음 봤을 때 조금 놀랐다. 북한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이다.

“새터민 모임에 나갔다가 어르신 고향에서 온 사람을 만났지 뭐니까.”

새터민 아저씨의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쿵쿵쿵. 할머니의 심장 뛰는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리는 것 같았다.

“어멈아, 아범아, 고향 사람을 만나게 됐단다! 고향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됐단다!”

할머니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것 같았다. 할머니와 우리 가족은 곧장 고속열차를 타기 위해 기차역으로 향했다. 고속열차는 빨랐다. 창문 밖의 풍경을 보는데 많은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었고, 가로수들이 셀 수 없이 스쳐 지나갔다. 하늘을 보니 구름 한 점 없이 해가 짹짹 비추고 있었다.

“영훈이가 많이 컸구나.”

새터민 아저씨가 나를 보더니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우리가 족은 새터민 아저씨가 사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생각보다는 괜찮은 집이었다. 마당도 있고, 그네도 있고, 새끼 강아지들도 있었다. 아주 귀여웠다. 어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나는 새끼 강아지들과 놀았다.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강아지들이었다.

“넌 누구니? 어디에서 왔는데 주인 허락도 없이 강아지들을 만지는 거니?”

나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새터민 아저씨가 말한 적이 있는 ‘해방’이라는 아이라고 확신했다. 누가 보더라도 아이는 새터민 아저씨와 붕어빵처럼 닮았기 때문이다.

“난 정영훈이야. 할머니를 따라서 왔어. 만나서 반가워.”

해방이와 나는 금세 친구처럼 가까워졌다. 해방이네 집에 컴퓨터가 두 대여서 우리는 다투지 않고 컴퓨터로 게임을 했다. 내가 아슬아슬하게



이길 수 있었는데 해방이가 스킨을 사용하는 바람에 내가지고 말았다. 솔직히 이겼다면 기분이 좋았겠지만, 해방이 실력이 나보다 한 수 위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해방아, 넌 왜 북한말을 안 쓰니?”

게임이 끝나자, 나는 궁금하던 것에 대해 물었다.

“북한말을 쓰면 내가 새터민이라는 게 표시가 날 것 같아서…….”

“새터민인 게 뭐가 어떻다고 숨기냐?”

“남한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서 겁이 나.”

“해방이 너 보기보다 겁이 많구나. 난 네가 새터민 아이라서 좋기만 한 걸.”

“정말 그렇게 생각해?”

해방이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나는 해방이를 향해 고개를 크게 끄덕여 주었다.

새터민 아저씨 집에서 짐을 챙겨 나왔다.

“아버지, 꼭 살아 계세요. 살아만 있다면, 살아만 있다면, 언젠가는 꼭…….”

증조할아버지가 살아 계실지도 모른다는 말에 할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새터민 아저씨께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  
초등부  
우수상  
★

# 백두산 병대벌레의 선물



글 최인서 그림 최의선

“이거 선물이야.”  
해방이가 강아지 한 마리를 건네주었다.  
“나한테 주는 거야?”  
내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응, 이제 네가 이 강아지의 주인이야.”  
나는 뿔 듯이 기뻐다.  
“이 강아지 이름은 ‘통일’이야.”  
해방이가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통일아…….”  
나는 작은 소리로 강아지의 이름을 불러 보았다. 강아지가  
좋은지 분홍색 혀로 내 얼굴을 핥기 시작했다.

통일이는 나보다도 할머니를 좋아하는 것 같다. 내 품  
안에 있다가도 “통일아, 어서 오렴”하고 할머니가 부르면 쏜살  
같이 달려가 버린다.  
이제 우리 집에는 아빠와 엄마, 할머니와 나 그리고 통일이  
가 함께 살고 있다.





**나는 북한** 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내 기억 속에는 해주가 없습니다. 내가 두 살이던 해에 우리 가족 모두는 대한민국으로 목숨 건 탈출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나오시지 못했고 엄마와 나 단 둘뿐입니다.

엄마는 거리 행상을 하십니다. 정착금으로 작은 방을 구했지만 사업 같이 하자시던 어느 아주머니의 말에 그만 떼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가진 돈이 없습니다. 나는 왕따입니다.

“야! 거기, 빨갱이 새끼! 니네 빨갱이 소굴로 어서 돌아가.”

나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의 잦은 폭언과 멸시는 이제 익숙해진 지 오래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원으로 삼삼오오 짝지어 가는 친구들과는 달리 터덜터덜 엄마가 있는 거

리로 길을 나섭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등 유명 스포츠 쇼핑몰을 지나 아웃백, 피자헛, 파리바게트 등 휘황찬란한 상가를 지나 지하보도를 건너면 우리 엄마의 모습이 보입니다. 초췌한 모습을 보니 오늘도 끼니를 거르신 듯합니다.

“자, 여기.”

학교에서 무료 급식으로 받은 우유와 피자빵을 엄마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니다, 엄마는 아까 점심 먹었다. 수야 먹어라.”

꼬르르륵! 엄마는 북에서나 남에서나 굶긴 매한가지입니다. 배고파 목숨 걸고 찾아온 남한인데 엄마와 나, 두 식구가 살아내기엔 너무나도 척박한 곳입니다.

“엄마, 나 숙제하러 갈게.”

엄마를 피자빵이라도 먹게 하려고 얼른 그 자리를 피해 나왔습니다. 멋지게 솟은 고층 아파트 담 너머 작은 고시원 방 한 칸에서 엄마와 살고 있습니다. 엄마 없는 고시원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발을 돌려 낙원 아파트 놀이터로 갔습니다. 내 또래 아이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모래를 한 움큼 잡았습니다. 샤르르륵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졌습니다. 다시 움켜잡았습니다. 역시 샤르르륵 모래가 빠졌습니다. 모래의 감촉이



시원하면서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다시 한 번 더 모래를 움켜 쥐었습니다.

“앗, 따가워!”

모래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함께 섞여 있었나 봅니다. 손 바닥에 깊숙이 박힌 유리 조각을 무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낫 낫 제 집으로 돌아가는 햇살의 방긋거리는 미소에 유리 조각이 찬란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래에 떨어진 빨간 핏방울들 사이로 작고 단단한 검은 물체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신기하게 생긴 벌레네!’

아픈 줄도 모르고, 그 벌레의 움직임에 모든 신경세포가 정지한 듯 멈추었습니다. 벌레가 나를 가만히 응시하더니 입을 열어 아주 익숙한 톤으로 “내래 백두산병대벌레디. 만나서리 반가워!” 하고 말을 했습니다.

몸통은 8~10밀리 정도이고, 몸은 광택이 나는 흑청색으로 앞가슴등판은 원 모양이며 붉은색입니다.

“인민들의 상징인 붉은색이 내 트레이드마크야! 나는 진딧물을 먹고 사는데 이곳 남한에는 진딧물이 엄청 많아. 지상낙원이 따로 없지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듣고 있는 북한 사투리가 저 곤충이 내는 소리인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군가 나처럼 이 맹랑한 벌레의 목소리를 듣기를 바랐지만 그곳에는 나와 이 병대벌레뿐이었습니다. 문득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병대벌레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나는 이수라고 해! 내 고향은 황해도 해주야! 안중근 의사와 같은 고향이지!”

순간 으스대는 내 목소리에 스스로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병대벌레가 말했습니다.

“내래 북에서 왔어. 지금 다시 북으로 갈 거야. 너도 갈래?”

‘뭐라구? 북으로 간다구?’

병대벌레는 그 작은 날개를 퍼덕이며 남과 북을 수시로 오가는 듯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사람도, 곤충도 모두 먹고 살아갈 수가 없다고 병대벌레가 말했습니다. 가슴이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아, 가고 싶다. 가보고 싶다. 아버지는 살아계실까? 내 고향은 어떤 곳일까?’

“병대벌레야! 그 작은 몸으로 날 어떻게 데려간다는 거야?”

병대벌레가 키득거리며 웃더니 내 발아래서 작은 날개를 퍼덕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좌사사’ 하더니 내 몸이 1센티밖



에 안 되는 병대벌레보다도 더 작아졌습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나보다 커진 병대벌레를 자세히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병대벌레가 얼른 등에 오르라고 고갯짓을 했습니다.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병대벌레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날갯짓을 하던 병대벌레의 몸이 나와 함께 하늘 위로 솟구쳤습니다. 이 작은 벌레의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올까요?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하늘을 날기 시작했습니다. 해가지는 하늘은 그야말로 붉은색 천지였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나는 병대벌레 등 위에서 세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수다!”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날 괴롭히던 승찬이, 재규, 혁재가 날 봤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엄청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북으로 가니까 영영 돌아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무튼 병대벌레는 어느새 관문점을 지나 휴전선 위를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는 서산을 끝까지 넘어가고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위에서 바라본 세상은 서울의 뿌연 하늘 아래 빼곡히 들어찬 숲 막히는 도시의 야경이 아닙니다. 드문드문 율타리가 낮은 작은 집이 보이고 휘황찬란한 네온이나 불빛은 찾

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병대벌레야! 북에 가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 얼굴도 몰라. 엄마 말씀으로는 탈북하다 우리를 숨기고 끌려가셨다는데 살아계시기 힘들겠지?”

“…….”

병대벌레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원했던 바람이 어느새 차갑게 뺨을 때렸습니다. 칠흙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산등성이를 넘고 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네가 태어난 해주 집이야.”

깜박 잠들었다가 병대벌레의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좌사사…… 내 몸이 어느새 본래대로 자랐습니다. 병대벌레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깜박이는 불빛에 이끌려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일까? 아버지가 계실까?’

“저기……요, 안에 계세요?”

숨넘어가는 작은 목소리가 갈딱갈딱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으며, 그나마 약하게 흔들리던 호롱불빛마저 훑 꺼져 버렸습니다.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안을 향해 물었습니다.

“이서도라는 분을 찾습니다. 제 아버진데요, 저는 남한에서

왔습니다. 이수라고 합니다.”

순간 벌컥 문이 열리면서 호롱불도 밝아졌습니다. 방안에서 낮선 아저씨가 고개를 숙 내밀더니 어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와 살고 있는 고시원 방만한 곳에는 호롱불과 낡은 이불이 전부였습니다. 아저씨는 쾅하게 야윈 볼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네…… 네가 이수라고? 정말 이수란 말이지?”



까만 눈동자가 번득였습니다. 눈 가득 눈물이 금세 차오르는 걸로 보아 아버지가 확실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입을 떼기 무섭게 아저씨가 나를 와락 끌어안고 흐느끼셨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내 아들… 이수가…….”

한참을 서로 안고서 울다가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시더니 남한에서의 생활을 물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어머니와 행상을 하며 겨우 학교만 다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병대벌레를 만나기적처럼 이곳으로 올 수 있게 되었노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놓지 않으려는 듯 내 손을 꼭 잡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수야, 엄마께 전해드려라. 아버지는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 날까지 절대로 죽지 않을 거라고. 꼭 살아서 통일 되는 날 우리 함께 살자고 전해드려라.”

그러더니 낮은 베개 밑에서 은색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네 엄마 손에 꼭 끼워드려라.”

좌사사…… 어느새 병대벌레가 나타났고, 아버지와 작별인사를 할 새도 없이 몸이 작아졌습니다. 병대벌레는 나를 등에

태우더니 다시금 문밖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병대벌레는 나를 낙원아파트 놀이터로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 몸은 원래대로 커졌고 어리둥절한 사이에 병대벌레는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볼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을 스산한 바람이 말없이 어루만졌습니다. 아직도 옆에 있는 듯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한 약속이 생각나 얼른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은색 반지……. 얼른 엄마께 갖다드려야겠다는 생각에 한걸음에 달려 엄마가 계신 행상으로 갔습니다.

행상 자판 위에 있던 잡화들이 거의 팔린 듯 보였습니다. 함박웃음을 짓는 엄마의 얼굴을 무척이나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야, 일본에서 단체로 관광 오신 우리나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랜만에 고국에 오신 거라며, 엄마가 북에서 넘어왔다



는 말에 자판 물건을 다 팔아 주시더구나.”

엄마는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믿기 힘들시겠지만 저는 조금 전 북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고 왔어요. 아버지는 꼭 통일 되면 같이 살자고 하셨어요.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이 반지를 주셨어요.”

꿈인지 생시인지 비몽사몽간에 엄마는 내가 내민 반지를 받으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수야! 이 반지는 돌아가신 네 증조모께서 시집온 내게 주신 유품이란다. 이건 백금으로 만든 아주 귀한 물건인데 탈북할 때 요긴하게 쓰려고 했지만 그만 집에다 두고 나왔던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니? 세상에... 세상에.....”

내게 일어난 이 꿈같은 하루가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사뭇 기대됩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를 꼭 다시 만날 겁니다. 비록 가난해서 학원은 못 다니지만 정말 훌륭하게 자랄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떳떳하게 만날 겁니다. 이제 그동안 날 괴롭혔던 승찬이, 재규, 혁재에게도 달라진 모습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게도 아버지가 계십니다. 남북이 갈린 건 아버지의 탓도 내 탓도 아닙니다. 나는 당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세대를 책임질 일꾼으로서 꼭 성공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반지로 다시금 삶에 용기를 얻으신 우리 엄마도 이곳에서 꼭 멋지게 정착할 겁니다. 지켜봐 주세요.

백두산 병대벌레야, 정말 고마워!